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排日抗日全滅策의 全面的承認要求

外務當局蔣介石氏의責任回避態度에憤慨

끗까지國府責任追及

【東京二十一日發同盟】成都、北海兩事件에 繼續하야 漢口事件이 勃發하는等 連發하는 不祥事件에 中國側은 다만 遺憾의뜻을 表할뿐으로 何等解決策을 講究치못하는 現狀임에 鑑하야 川越大使는 外務省의 訓令에 基하야 各事件의 背後에 橫在한 排日抗日 全滅에 關한 要求의 全面的承認을 强迫하야 有効適切한 措置를 講究하지 안흐면 더以上 隱忍하기 不可能함으로 獨自의 立場에서 自衛手段을 取할수밧게업는 바如斯한것은 日支兩國에 對하야 不幸함으로 中國側에서는 此際猛省할것이라고 極히 强硬한 意見을 開陳하고 中國側에 當先熟考를 督促하기로된 模樣이다

【東京電話同盟】不祥事件解決及國交調整의 二大使命을 帶하고 國民政府와의 折衝에 當하여잇는 川越大使는 國民政府의 態度가 아직充分誠意를 信賴 期待하기難하고 交涉繼續도 意味업다하야 强硬決意를 鞏固히하고 二十一日外務省에 指示를請하엿는데 外務當局은 蔣介石氏가 이重大時期에 廣東에서 英國香港總督과 會見하고 責任을回避하는 態度에 極히 憤激하야 川越大使의 決意는 諒解하나 이使命을 遂失하면 日中國交의 全面的調整은 希望할수 업다는 見地에서 더욱 國民政府의反省을 促하고 어데까지 其責任을 追究하기로되여 中國側의 態度를 監視하고잇다

漢口特別警戒施行

【漢口二十一日發同盟】當地總領事館警察에서는 楊主席에 對한 三浦總領事의 正式抗議提出에 압서 海軍과 協力하야 市街警備를 一層嚴重히하기로되여 署員全部에 銃劒携帶의 正式武裝을 施하고 二十一日午後九時부터 特別警戒를 施行하엿다

楊政府主席에게 抗議提出決定

吳市長의調印回避로

【漢口廿一日發同盟】現場檢證文書調印에對하야 中國側이 遷延을策하고 責任回避態度로 나옴으로 三浦總領事는 極度로 憤慨하야 二十一日午後六時 다시 電話로 吳國楨市長에對하야 至急調印을 嚴談하엿스나 吳市長은 말을左右로하야 應할模樣이 업고 調印은 全然不可能하게되엿다 三浦總領事는 中國側의不誠意가 顯然한것을 認定하고 獨自의見解에依하야 斷乎 抗議하기로 決定하고 午後八時 日比野第十一戰隊司令官 渡中津陸海兩武官을 總領事館에 招致하고 外、陸、海外三省會議를 開하고 重要協議를 行한結果 楊永泰湖北省政府主席에 對하야 正式抗議를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

【漢口廿一日發同盟】吉岡巡査가 射殺된 現場은 租界外인 點에對하야 吳國楨市長의 證明을 어덧고 또 現場目擊者의 供述에 基하야 事實調査의 確認調印을 今日中에 終了를 豫定이엿스나 吳國楨市長은 午後五時에 이르러도 總領事館에 자최를 나타내지안코 日中雙方의 調印은 未了된채로 遷延되게 되엿다 本文書는 今後 日本側의 抗議提出에 重要한 文書가 될것임으로 日本側에서도 其調印을 速히 終了하기를希望하고잇는데 吳市長이 今日에이르러 俄然態度를 變한데 對하야 三浦總領事를 비롯하야 日本側은 激昂하고잇다

領事는 二十二日 楊主席과의會見에서 現地陸海外의 一致된强硬意見을 述하야 中國側에 嚴重申請할터이나 中國側의 態度가 滿足할時는 何時라도 必要에應하야 獨自의 立場에서 居留民의自衛策을 講究하야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行動을 取할것이라는 斷乎한 決意를 表明할터이다

獨宣傳相希臘訪問

【아테네二十日發同盟】獨逸宣傳相괴벨스氏는 夫人同伴 二十日夕刻伯林出發 午後七時 아테네에 安着하엿는데 到着하자 괴벨스氏는 希臘國民에對한 멧세이지

陸戰隊를侮辱!

果物껍질과汚物投下

【上海二十一日發同盟】成都事件發生再來上海의 排日侮日風潮가 激化하고잇는 此際二十一日午後七時十五分頃 日本陸戰隊가 北四川路를 巡邏하고잇슬때 租界에 接續한 中國人經營順風단스홀 階上으로부터 日本陸戰隊에向하야 果物의 겁질과 其他의汚物을 投下하야 挑戰的態度를 取하엿는데 이急報를 接한 陸戰隊는 即時 當直將校를 現場에 派遣하야 彭巡邏隊 公安局員立會下에 단스홀經營者에 對하야 嚴重原因을 調査中이다

御下賜金傳達式

廿二日京畿道廳에서

今回의水害로 京畿道罹災者에게 下賜하압신 御下賜金의傳達式은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道會議室에서 甘蔗京城府尹及管下十六郡守參集下에 安井知事로부터 傳達하엿다

三浦漢口總領事 强硬意見을傳達

【漢口二十一日發同盟】三浦總領事는 二十一日午後八時 官邸에서 日比野第十一戰隊司令官 渡中津陸海兩武官과 中國側과의正式交涉에關한 最後的協議를 遂하고 二十二日午後三時 白井副領事同伴 省政府에 楊永泰主席을 訪問하고 第一次 正式交涉하기로 決定하엿다 三浦總

에國代表資格審査委員의 秘密投票選擧主張

뷔理事會議長、今次總會의重大意義를指摘

暗雲低迷裡聯盟總會遂開會

【쥬네브二十一日發同盟】第十七回國際聯盟總會는 에디오피아代表의 參加拒否問題를 中心으로한 各國代表의 豫備交涉이 成立되야 暗雲低迷한대로 定刻부터 五十分느저 二十一日午前十時五十分新聯盟會館會議室에서 開會되엿다 議場에는에디오피아首席代表 倫敦駐箚公使 마ー던氏以下二名의 代表가 出席한데 反하야 伊太利代表席은 空席인대로 나머잇는것은 特히 注目을惹起하엿다 傍聽席은『聯盟의危機』도 이미 慢性化하엿는지 極히 閑散 新聞記者席조차 가 空席인狀態로 聯盟의 落이 如實히 窺知되다 劈頭 理事會議長 智利代表뷔크니아氏가 서서 第十七回 國際聯盟總會의 開會를 宣言하고 國際聯盟成立以來 今回의 總會처럼 重要意義를 가젓든總會는 일즉이업다 今次總會는『人類文明의岐路』를決할 使命을 가지고잇다는旨를 指摘하고 各國政府의平和再建協力을 希望하야 大要左와如한 演說을하엿다 刻下의 聯盟最大의 業務는軍備競爭에 依하야 激成된 피비린 空氣를 如何히하야 除去할가 그原因及 方法을 探究하는데잇다 聯盟成立以來今日처럼 平和의 前途에 暗澹한 事態는 일즉이업섯다 今次總會는 人類의運命을 決定할重大使命을 가지고잇다 國際聯盟이 眞實로 有力키爲하야는 이等經驗에基한 原則의 適用如何로 그不偏性을 强化하야 改革을企圖치안흐면 안되다 同時에將來도 前回會議에서 指摘한社會不安의 根源인經濟恐慌克服을 爲하야 新刺戟을 案出키를 希望한다 以上의 演說이終了되자 此時에디오피아代表로부터 資格審査委員選擧는 秘密投票에依할旨를主張하고探決한結果 에디오피아代表의提議가承認되엿다 이리하야委員은 左記九氏가當選되고 總會는此等委員의 審査決定을기다려 休會에入하엿다 代表資格審査委員

이 든(英國外相)
델보스(佛國外相)
리트위노프(蘇聯外務人民委員)
위스키(척코代表)
포리틔스(希臘外相)
아라스(土耳其外相)
트베라(智利代表)
죠ー단(新西蘭代表)
빈부례(和蘭代表)

에皇帝壽府到着

【쥬네브二十一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셀라시에一世는 令息及 라스캇사將軍을 同伴하고 주네브近郊라인트리飛行場에 二十一日午後五時三十五分 到着하야 에國代表마린博士等의 出迎裡에 即時宿舍에 入하얏다 皇帝는 自國代表의 總會出席에 對하야는 純正한論據에서 에國資格審査委員會에서 에國代表의 出席을 拒否할 境遇에는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控訴하야 曲直

萬一事態에備코 朝鮮軍도大緊張

日中關係一觸卽發危機

對中問題의 解決을 爲하야 마을 爭鬪決意라한다 日本側은 自衛權을 發動하야 一觸卽發의 緊張을 呈하고잇는데 朝鮮軍에서도 中央部로부터 重要指令이잇슴이지 廿一日夜來 佐枝軍參謀長을 中心으로 參謀會議를 招集하는等 異狀한 沈默裡에 萬一의 事態에 備하야 各種準備를 整備하는 貌樣이다

朝滿各會議에 相互傍聽者出席

南總督下에 開催된 最初의 知事會議에는 植田와如히 滿洲國及 關東軍으로부터 傍聽者가 出席하기로되엿는데 總督府에서는朝滿關係가 特히 緊密할것을 必要하는事情에 鑑하야 今後滿洲에잇는대로 滿洲國關係者가 此種會議에 列席함을 歡迎할方針이며 朝鮮에서도 支障이업는限 傍聽者를 出席식혀 兩者間의圓滿한 理解促進에 努力할意向을 갓고잇다 이結果는 必然的으로 今後朝滿關係를 一層密接化하고 日本大陸政策遂行에 寄與한바가 多大하리라하야 注目되여

治水委員會 設置準備協議

臨時治水調査委員會와 併行하야 水害恒久對策樹立을 爲하야 設置할 朝鮮治水調査委員會의第一回準備協議會는 昨二十一日午後 總督府內務局長室에서 內務局長 總督府各局關係官出席下에 委員의 詮衡 其他委員會設置에 關한 其他準備交協을 行하엿다

少年航空兵試驗

第二十師團管下少年航空兵志願者試驗은 二十二、三兩日에 亘하야 京城 平壤 大邱三個所에서一齊히 擧行하엿는데 操縱士志願者二十九名 技術志願者四十四名이다

瑞典內閣更迭 左翼選擧에大勝

【스톡홀름二十一日發同盟】瑞典國會選擧은 左翼各派가 壓倒的勝利를 獲得한結果 피손首相은 總辭職을 決行하얏슴으로 社會民主黨領袖한손氏가 後繼內閣을 組織하리라고觀測되다

人事·集會

▲韓相億氏(辯護士) 府會議員當選人事次來社
▲藤村忠助氏 同上
▲朴元信氏 同上
▲李昌業氏(同上)同上
▲康容构氏(同上) 同上
▲長谷川和三郎氏(同上) 同上
▲車相鎬氏(同上) 同上
▲曺秉相氏(府會議員)韓朴兩氏와 同伴來社

米漁業關係者等 알라스카近海封鎖主張

日本漁業進出에備하야

【시아톨二十一日發同盟】太平洋漁業會議는二十一日시아틀에서 開催할 日本漁船의 알라스카近海進出에對하야 左의決議를 採擇하엿다

『日本漁業界는 알라스카近海에서 鮭의漁撈에着手할 計畫이라하는데 右計畫이實現될時에는 米國太平洋岸의 鮭罐詰業者는 重大脅威를 受하게되고 就業三萬의勞働者는 生活權의 威脅을밧게될것이다』

以上의情勢에鑑하야 와싱톤州産業計劃課委員프리만氏는 벌서 政治的策動을 開始하야 알라스카近海封鎖를 提唱한다고 傳한다 氏는二十一日左와如히述하엿다

日本人의進出은 單純히太平洋岸의漁撈를 脅威할뿐만아니라 軍事上으로도 相當히 憂慮되지안흐면 안될點이잇다고 思한다 聯邦議會는速히 알라스카地方의西部近海를軍事作戰地帶로制限하고 外國漁船의右地帶에 進入을絶對로 禁止하지안흐면안된다 余는 以上의方針에基하야 上院議員과 交涉을 開始하것다

와싱톤州上院議員 베야슨氏도 亦是至急何等의對策을 講究하지안흐면안된다고 强調하고 日米加三國政府間에 漁業制限協定을 締結할것을 主張하고잇다

西班牙大統領 逮捕監禁說 共産黨員에게

【세빌리아二十一日發同盟】叛軍側의放送에 依하면 西班牙大統領아자니아氏는 共産黨員에게 逮捕監禁되엿다고傳한다

八面鋒

◇十一月부터 實施되는 米穀自治管理法을爲하야 百八十個의 統制組合을만든다고。

◇組合任務가 무어인지는自明한일이어니와、農家의自由換錢이못되는것은 무슨方法으로救할수가잇는가。

◇京城仁川兩地의 朝鮮酒合同運動이 現實的으로 進行되는 모양。

◇大資本의 大會社를 만들어서 大社長職을 안치는것이 統制의 本意는아니겟지。

◇地方의施行하야 國庫收入을 리려하는것이 明年度豫算支出의一方法인듯。

◇그러고도 赤字公債를發行할려면 大衆의消費稅만은 거두지안는것이 如何。

白頭山探險記

酷毒한寒冷으로 闊門探險을中止

㉜ 徐 椿

現在 우리가 서 잇는 地點은 踏査者로서 天池를 俯瞰할수 잇는 最初의 地點이다。이 地點에서 天池를 向해 서면 左便으로 白頭山最高峰인 兵使峰(又稱大正峰)이 雲霄에 屹立하고、右便으로는 마치 큰 怪物이 아가리를 벌리고 덤벼들듯한 望天吼라고하는 千仞萬丈의 土壁斷崖가 잇고、그望天吼가 東南으로 達하야 빼족한 봉오리는 即、天王峰이라는 것이다。그러니까 저 雙蒲舵(略舵의一種)에 譬해 말하면 우리의 立脚地는 兵使、天王의 兩峰을 雙蒲로한 間隙部에 該當하다。茂山또는 惠山鎭으로부터 踏査하는者는 반드시 이地點으로 올수밖게 업시되고、이地點에 到達하면 비로소 天池가 보이는것이다。그러나 自來로 白頭登山者가 적어든 탓인가? 이러케 重要한 地點에 이름이 부터 잇지 안타。後日、適當한 이름을 지을 사람이 잇겟지마는 여기서는 말을 簡單化하기 爲하야 이地點을 鞍部、望天吼라고 假命名한다。約一町步의 地가 平平坦坦하게 展開되여 잇스니까 著者라는 생각이 나고、이地點은 望天吼의 바로 뒤(北)편만 아니라、天池를 眺望하는 地點이오、또 天山이니、天坪이니、天池니、天河니하야 天字는 白頭山과 緊密한 關係에 잇기때문에 望天이라는 생각이 난것이다。望天臺에서 天池를 俯瞰하는 것은 마치 終南山에 올나서서 京城市內를 나려다 보는것과 비슷하다。京城市內에 물이 잭 드려차고 그周圍에 北岳山보다 좀더 놉고 깨파라운 山들이 圍繞되엿다고 假想하면 그것은 天池와 비슷할것이다。望天臺에서 바라보면 約十五里를 相隔해 보이는 天池東端에 池水의 流出口가 보이는데、이곳이 松花江의 流源地인 바 여기를 闊門이라고 한다。闊門 채 밋지 못한곳에 右便의 輪山家峯에 귀귀한 建物의 형지가 稍微하게 건너다 보이는데 이것이 有名한 宗德寺라는 것으로서 白頭山唯一의 建物이다。望天臺에서 宗德寺를 지나서 闊門까지 가려면 (一)輪山의 우로로 갓다가 오려면 七八時間을 要하고 (二)天池로 나려가서 池邊으로 갓다가 오는데도 五六時間이 걸니는것이다。

白頭山探險의 目的을 完全히 達하는데는 望天臺에서 天池와 輪山을 眺望하는데 그치지 안코 반드시 (一)兵使、天王의 兩峰에 올나가 보고、(二)宗德寺、闊門까지 가 보아야 되는것이다。今番 우리 一行의 行程이 午前七時로 遲延된것은 闊門探險의 計畫에는 一大支障이 된것이다。게다가 天池와 및 輪山에는 濃霧가 끼엇슬는지도 모르고、濃霧는 업다고 할지라도 暴雨에 遭遇할는지도 모른다는 憂慮를 가지게 하면 生命의 犧牲者까지 생길念慮가 濃厚하다고 한다。길이 몹시 險하야 까딱 失足하면 큰일 날데가 만키때문이다。나는 本隊隊長으로서의 責任上、安全第一主義를 取할수밧게 업는 立場에 잇는 故로 闊門探險中止說을 支持햇다。그러나 十數名의 冒險派가 잇서 비록 죽는 限이 잇다고 할지라도 푸로그람대로 實行하야 初志를 貫徹하자는 說을 頑强히 主張하고 잇다。그러나 그들이 정말 讓步치 아니하면 나는 그때에는 또한 責任上 그들을 따라서 一大冒險을 해야 될 處地에 잇다。그러기때문으로 더욱 困難을 느끼고 冒險派諸君을 撫摩하기에 무척 애를 쓰고 잇는판에 우리 隊員二十三名中에서는 唯一한 先驗者이신 金秉河氏가 넘어와서 그光景을 보다가 나를 對하야 종요히 하시는 말이 『구지 그問題를 가지고 찻울 必要가 도모지 업습니다。나는 몯지사번 왓슬때에 闊門까지 가보앗습니다。나의 經驗에 依하면 今日과가치 天候가 나뿐날에는 輪山路、池邊路를 무룹것이 업시 闊門을 向해서는 一步도 옴겨 노흘수가 업습니다。그것은 누가 理致로 說明하지 안는다고 할지라도 絶頂(望天臺)에 올나서서 보면 누구나 곳 그不可能한것을 깨닷게 되는것이올시다。보면 모를것을 저절로 깨다를러인데 여기서 찻울것이 무엇 잇습니까? 가겟다는 사람은 다 가자고 해 두십시요、絶頂에 가보면 저절로 가겟다는 사람이 하나도 업서질터이니 그것을 밋수요。』라는 말을 해 주신다。나는 金秉河氏의 이智慧를 비러 가지고 中止勸誘니、撫摩니 하는 귀치 안흔 일을 그만 두고서 『정말 가시겟다는 분이 게시면 不可不、闊門까지 갈수밧게업스니 그러케 한시다。』를 相約하야 闊門探險問題에 一段落을 부치고서 絶頂을 向해서 登攀을 繼續하든것이엇다。그러든것이 望天臺에 到達하야 그놉고 무서운 光景과 一睐之下에 展開된 闊門行路의 險難相을 보더니 冒險派諸君의 闊門探險決行說은 그만 쑥 드러가 버리고 마럿다。그뿐아니라、그 놉고 무서운데 얼마나 놀들이 빠젓든지 望天臺에서 約二十分이면 갈수 잇고 第一로 가기 容易한 兵使峰에 올나가 보자는 사람조차 한분도 게시지 안헛다。이것은 우리一行이 特別히 懦弱해서 그런것이 아니라、우리 一行의 登山期는 他諸先驗隊보다 約二、三週日 느젓기때문으로 몹시 치웟든때문이다。이런 때에 잇서서 天池一泊은 그만 一泊이 아니라、一死로 되고 말것기때문에 우리는 闊門探險을 中止할뿐만이아니라 아조 天池一泊까지中止해 버린것이엇다。(寫眞은 白頭山最高峰인兵使峰—續)

表에 天池一泊이라는 하로가 잇는것은 이것을 보기 爲함이엇다。

그런데 無頭峰서 出發할때에 午前午時의 豫定이 暴雨의 妨되니까 一行中에서는 無頭峰出發時부터 벌서 闊門探險中止說이 擡頭했섯다。輪山우호로 가나、池邊으로 가나를 무론하고 언제 一旦、暴雨 또는 濃霧에 遭遇

平壤基督病院에서도
버드나무票 네오톤 處方이最多

平壤基督病院은 宗敎的使命에서 至聖至純한 人類의發露로 創設以來長久한 歷史와 博愛的仁術에依하야 우리朝鮮人士에게 끼친裨益과功獻이야 말로 偉且大한것으로 其趣旨와實績에對하야 우리는 오로지 感激以外에 아모것도업다。

現在數氏의 醫學博士와 十餘名의 醫師의充實한 陣容으로써 더한층 이至純至聖한 使命遂行에精進하는바 過去에잇서서 이基督病院은本行發賣品世界的强壯劑 버드나무票네오톤NEOTONE의 眞價를實認하야 實로數千폰드의 네오톤 을 處方한것이다。

그러나 近者本 네오톤 의 效力卓絶에因하야 廉價의 模倣品이 簇出함을따라서 經濟力이그러케 만치못한분에게는 버드나무票네오톤 代身에 廉價한 模倣劑를쓰게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本 네오톤 을 願하실때는 貴下가 信任하시는病院이나 醫師에게 버드나무票네오톤 의 眞否를 問議하시든지 或은藥房에서 本 버드나무票네오톤 包裝을 確實히檢閱하신後에 購得하서야한다。

要컨대 우리는 무엇보담도 信賴할만한 仁醫를차저서 仁醫가 信用하고 推奬하는品質로 効力이 優秀한 藥劑를써야한다。

네오톤 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
大連市駿河町一九
上海圓明園路一六九

全國各有名藥房에서販賣 文獻及說明書請求 卽時送呈

小店員採用
普通學校卒業者十五才까지男子 自筆履歷書携帶本月二十七日午後四時까지本人來談할事 但地方住居人도無妨
京城府三角町三五 大成商會 電話本(六二七一番)

分所長招聘
各道擔任 活動力이有한成年者로本人又는戶主의納稅年額二十圓以上有資格의 人士喜希望
京城府黃金町二丁目 太平生命京城支社 李進學

恩給 朝報案內
最大限期 立替 其他이立替 遠方은通信契約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各地有名藥店에 本舖로注文하시오
日光堂藥品部 京城鍾路四丁目 振替京城一九一四三番
질림 キヨリン『교링』
림질근치약으로유명하신 발명약 을복용하시면 그날부터 절대 한효과를보리다 약가 二圓 三圓 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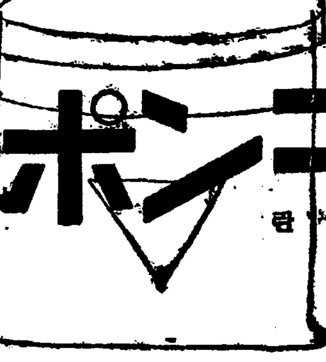
シダクシム
現代人의새로운 약재구충외 자마보니보까 消化不良藥 齒痛用 醫藥大治大阪 堂平大阪 發賣 子藥ノ太

腰帶製造專門
ゴム腰帶 人絹角帶 ツボンツリ 製造販賣
京城鍾路町二ノ八 京城帶物商店

世界的體症名藥
韓氏膏藥 到處藥房販賣
사십세 한씨고약 이라고 찾으시요

現代式販賣法
米國商務學士 延禧專門商科教授 崔淳周先生序 新進商業研究家 梁基哲先生著
四六版三百五十頁 定價一圓二十錢 送料 十八錢
京城堅志町 漢城圖書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本社京販 電本(2)一五九八



란란 캔욤
ラランポマード
란란포마ー도
모도가고을다

當選謝禮
本人이今般京城府會議員選擧에當選되엿사음거有權者諸位의 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山田眞一

世界에돈안드는專賣特許의大發明完成
大人事實理 一壁占 業遺石
本品의 性能은 工業、農業、家具界等에서實驗!!
年純利益三六萬圓以上確實、分擔共營五千圓以上
平壤府南門町二九 朝鮮現代社 電話二〇一番

市內外에强盜跳梁
東部와始興郡下에서

서부경성 봉래정(蓬萊町)에서 돗기에도 무시무시한 살인강도사건이 발생한지 얼마에 아직까지 범인의 일흠조차알으는 시내각서에서는 비상한 활동을계속하고잇는 이지음 어시이밤에는한시간을전후하야 동부동대문서와 남부영등포(永登浦)서 관내에서도 강도사건이발생하엿다 지리하든장마끗테 겨우가을바람을마지하야 맑아가든도서사람의마음을 도다시 흐리게하며 공포에 싸이게하고잇다

壯漢二名이突現
行人襲擊 街上亂鬪劇
二十一日深更에東廟아페서
超스피드의犯人逮捕

이십일일밤열시 시내창신정(昌信町)백사십삼번지의일호 나무가게배달부 윤석호(尹碩鎬)(三六)가 집으로 도라가는길로 창신정삼백구십이번지 가축시장(家畜市場)뒤골목(경성궤도동대문역에서 약사정가량 되는곳)에 이르럿슬때 난데업시 장한두사람이 나타나 돈을내라고하니 돈이업다고하자 이두사나히는 무단폭직하고 전귀유의머리、얼골、다리를때리고 차고하야 가상란투극은 약삼십분이나 계속되엿다 강약이부동으로 이싸움에 윤은얼골、팔、다리등에 약열흘동안의중상을입엇스며 범인들은 그가손목에찻든 팔원(八圓)짜리크로ー므시계(時價五圓가량)를 강탈하자 못기어가리 도망을하엿다 길우에마저쓰러젓든 유은 몸의부자유를무릅쓰고 이것을근처에잇는 동묘(東廟)파출소에 알리자 숙직하고잇든 사야(砂野)순사는곳 범인을 추격하야 범행현장에서 약일정가량되는 곳에서 한명은 붓잡엇스나 한명은 노처버렷다 이급보를바든 본서(東大門署)에서는 형사대가 비상활동을 시작하야 이십이일 오전한시반에 도한사람도 무난히 체포하야 사건발생한지 세시간반의 단시간에 "스피ー드"해결을 지엇스며 그들의 주소씨명은 다음과갓다

本籍 京畿道抱川郡加山面加山里一三二 現住所 市內新堂町一六二(西泉洞五三號) 勞働 李龍煥(二一)

本籍 開城府元町四二一 現住所 市內昌信町三三○의一四 펭키職工 金性淳(二九)

新東普校長 舍宅에强盜
凶器로現金强奪逃走
龍山署에선應援搜査

【永登浦支局電話】이십일일밤열시반쯤되여 경기도시흥군신도면서조리(始興郡新東面瑞草里)신동공립보통학교장 천엽항부(千葉恒夫)씨의 집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야 현금오십원을 어잇는지갑을강탈도주하엿다 이급보를 바든소관 영등포서에서는 이게당(二階堂)서장 신(愼)사법주임이하가 현장에급행하야 사실조사를 하는한편 비상경계망을 느리고 범인을 엄탐중이나 사건발생현장은 주재소에서 시오리나 떠러저잇는 교통불편한곳으로 본서에 보고가 다은것은 오전한시로 그동안에 범인은 유유히 종적을감처 수색은 일대곤란에 직면하고잇다 범인은 이십일일이 월급날인것을알고한 범행갓흐며 인상으로는키가 다섯자두세치가량이며 아래우에 힌옷을 입은것만은 판명되엿다 시내본서에서도 범인이 서빙고(西氷庫)방면에 잠복하고 잇다는보고를 밧고응원수사중이다

通話區域擴張
十九個所編入

체신국에서는 다음의 열아홉곳을 전화통화구역에 편입하야오는 이십오일부터 실시하기로되엿다 그러면 여러지방에서는 이로부터 통신에 매우 편리하게되엿다

◀평양(平壤)청성진(淸城鎭)사이
◀평양 창성(昌城)사이
◀평양 벽단(碧團)사이
◀평양 벽동(碧潼)사이
◀평양 성천(成川)사이
◀사리원(沙里院)신의주(新義州)사이
◀남천(南川)영등포(永登浦)사이
◀남천 수원(水原)사이
◀남천 조치원(鳥致院)사이
◀장도(長島)흥남(興南)사이
◀평양 우시(雩時)사이
◀평양 초산(楚山)사이
◀평양 위원(渭原)사이
◀평양 덕천(德川)사이
◀원산(元山) 웅기(雄基)사이
◀원산 부진(富津)사이
◀부산(釜山) 성진(城津)사이
◀회령(會寧) 함흥(咸興)사이
◀회령 영등포(永登浦)사이

文廟釋奠祭

추기문묘석존제(秋季文廟釋奠祭)는 이십이일 오전열시부터 경학원(經學院)에서 남총독(南總督)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 참석하에 엄숙하게집행하엿다

怪死事件
三浦辯護士의족하딸이
庭園에서疑問의죽엄

【平壤支局電話】이십이일오전 섯시경에 평양부산수정(山手町)이십륙번지에 거주하는 변호사 삼포호태(三浦虎太)씨정원에서 전기삼포씨의 오촌족하딸 석전히로에(石田ヒロエ)(二一)라는 일본내지인녀자가 목에상처를입고죽어머저잇는것을 발견하엿는데 즉시 대판검사(大阪檢事)가출동하야 검시한결과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판단키어려워 해부하기로되엿는데 해부결과가 주목된다고한다

安邊赤色農組事件
二名을拘束送局
治維法違反嫌疑로

수일전부터 경기도경찰부 사찰계(査察係)에서는 함남안변(安邊)에서 공산주의운동에 관계혐의가 잇는 청년수명을 붓잡아다가 취조하여왓는데 요지음에 와 취조가 끗나서 이십이일오전에 리동천(李東天)(二四) 김팔성(金八星)(二三)두명은 구속으로 그밧게 열두명은 불구속으로 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보내엿다한다 전긔 두명은 일즉이 서울에서 모중등학교에서 공부한일이 잇는데 고향에 도라가서 삼년전부터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을 조직하여오든중에 우연히 경기도경찰부에 탄로된것이라한다

奇特한一等兵
救命賞金을 水害에寄附

룡산공병(龍山工兵)제이십대제일중대 일등병 서산수일(西山秀一)씨는 지난칠월십륙일에 한강에서 그런대 련습재료감시병으로서 근무하든중 그근처 물가에서 조선어린아이한명이 물에 빠저죽게된것을 급히 건저내여 인공호흡을시켜서 살렷스므로 이십일일에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상원을 보내여 그를 표창하엿든바 그는 그돈을 도로 경기도사회사업협회에 가지고가서 수해의연금으로내고갓다한다

는리장배(李昌培)(三)가라고가든 자전거에 부내가회정(嘉會町)삼십삼번지 심일호(沈一鎬)에사는 홍종근(洪宗根)이가 치어서 외이쪽하퇴골이 부러젓는데 전치약일개월을 요하리라고하며 목하적십자병원에서 치료중이다

放火殺人犯
精神을鑑定

이십이일오전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형사부 재사호법정에는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坡州郡坡平面德川里)에사는 김량복(金良福)에 관한 방화살인(放火殺人)동 미수의혐의사건 공판이 유기촌(池村)재판장 주심되지전(池田)검사 관여로 제일회공판이 열리엇는데 재판장의 질문에대한 피고의 답이 자못애매하엿쓸만아니라 그의범죄사실이 너머나 괴상함으로 우선 피고의정신감정을 하여 보기로하고 폐정하엿다한다 사건의내용은 피고가 작년륙월칠일이래 경기도연천군 적성면 무건리(漣川郡積城面武健里)허봉옥(許鳳玉)의외양간을 비롯하야 그동리집에 열번이나불을노앗스며 그는또작년이월륙일에 자긔동리 리구희(李龜熙)의 장남 재식(在植)을 계집애인줄알고 외설행위를 하려하엿스며 작년팔월 십이일에는 그동리차설랑(車雪娘)의 삼녀조복숙(趙福淑)을 꾀여폭행을한다음 손으로 그의 목을눌러죽여서 시체를 내어버렷다는것이다

中等陸上大會
明廿三日、延專에서

延禧專門學校主催의第十四回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大會는 明二十三日午前八時五十分부터 入場式을行하고 同九時부터 競技를開始할터인데 參加校는 前年度優勝校養正高普를 비롯하야 第一高普、第二高普、培材高普、徽文高普、中央高普、普成高普、京城工業、大東商業等과 遠來의 松都高普를 合하야 十個校選手三百餘名選手가 出場케되어 當日의 盛況을 豫期케한다

東京遠征의 崇商籠球大勝
優勝은確定的

【東京】第十三回全日本中等學校籠球選手權大會 第一日은 지난十九日午後一時부터 明大 文理大 府立一中、市立一中의 四코ー트에서 열렷는바 第三部(實業校)에 出場한 平壤崇仁商業學校軍은 第一回戰에서 浦和商業校를 八十一對四로 擊退하엿다 이리하야 第三部에서는 崇商軍이 斷然頭角을 나타내이여 優勝은 거이 確定的이다

崇仁商業 81 (43 38 … 2 2) 4 浦和商

天氣豫報

槪況 七五六粍의低氣壓은滿洲中部에잇서 東進하고잇다。 七六六粍의高氣壓은 오호츠크海로부터 日本海에 퍼지고黃海도 氣壓이좁흐다。 滿洲는 흐리고 南滿及朝鮮은 개이고잇는데 南西部는曇、西日本은天氣가조흐나 其他는 흐려잇서 處處에 비가오고잇다。

豫報 京城地方ー今夜晴 一時曇 明日晴ー時曇 其他朝鮮全道同一

昨日最高 二五度
同 最低 一三度九
今朝最低 一五度
今日正午 二三度三

平壤憲兵隊 鄭基鐸檢擧

【平壤】평양헌병대특고과(平憲特高課)에서는 이십이일새벽에대활동을개시하여 부내상수리(上需里)방면에서 일즉영화계의스타ー로일홈이놉핫고 상해(上海)에서 영화촬영감독으로도 명성을날린 정기탁(鄭基鐸)을 검거류치하고 극비밀리에서 취조를 진행하는입방 가택수사를 하여 문서다수를 압수해갓는데 내용은 일체알길이업스나 중국방면과련락하여 모종의불온한계획을 하든것이 탄로된모양도가트며 검거는 다른방면에까지 파급될지도모른다고한다

白菜地에共軍
住民十名拉去

【新義州】공산군(共產軍) 양사령(楊司令)일파 약륙십명은 창성(昌城)대안 백채지(白菜地)를 일거에 습격할계획하에 십팔일 돌연 행동을개시하엿다는 정보를바든 창성서에서는 이를 토벌하려고 지난십구일 오전여섯시삼십분 동서 등강(藤岡)경부보이하 이십명이 현지로출동하얏는데 전긔양사령일파는 이미 그곳 주민열명을 잡아가지고 산중으로 도주하얏다한다

不發爆藥이爆發
村民兩名이死傷
抱川永中面任友鑛山의慘事

이십일 오후 세시 이십분쯤에 경기도 포천군영중면 금주리(抱川郡永中面金珠里) 유상호(尹相鎬)와 복기석(卜基錫) 량명은 그동리에잇는 주우광산회사(住友鑛山會社)에서 경영하는 광산에서 폭발되여 날려간 바위돌에마저서 윤상호는 복부를 마저 창자가 터저나오고 가슴이 찌여저서 이십분만에 죽어버렷고 복기석도 안면과 배와 가슴과 흉부와 팔과 다리에 마저서 중상을 입엇는데 이개월동안 치료를 바더야 되겟다하며 생명은 상관업스리라한다 그광산 폭발담당자 김화봉(金化奉)이가 폭파작업을 하든중에 불발(不發)다이나마이트를 착암기(鑿岩機)의 한쪽 네개에 다이여서 별안간에 소리가 나면서 폭발되여 바위돌이 그미트로 튀여가서 두명의 사상자를 내게된것이라한다 포천경찰서에서는 광산관계자를 불러다가 엄중히 문초하는 중이다

府議選擧戰終了後
檢察機關發動
本町署서新府議山本某의 選擧事務員을檢擧

경성부의선거전(京城府議選擧戰)은 이십일일개표로 순여(旬余)의 격전도 끗나고 히비(喜悲)의광조곡(狂躁曲)이연출되고잇다 에이여서 그선거전이 개시되면서 검찰(檢察)의눈을 게을리하지안하고 각립후보자의 운동전선을 감시하고잇든 시내 각서에서는 선거전이 일단락을맷자 곳 검거의 손을떼고잇다 즉시내본정서고등계에서는 이십일일 오후부터 활동을개시하야 그날저녁때까지 일본내지인의 륙칠명을다려다가 게원총출동으로 철야하면서 취조한결과 산본모(山本某)(假名)일파가 정도에지나친향응(饗應)을한사실이판명되엿다한다 이로서 그서에서는게속관계자를 호출하야 취조를게속하고잇다

斷食고테腦貧血
監獄살이가무서워서
取調밧든竊盜被疑者가

이십이일 오전열시경시내 종로서 사법계에서 절도피의자가취조를 밧다가 갑작히 졸도하여 넘어젓는데 그서에서는곳 경기도위생계촉탁진(晋)박사의 응급치료를 밧게하엿는바 뇌빈혈(腦貧血)을이르킨것으로서 아직도혼수상태에 빠저잇다 그는 절도전과 이범의 정신영(鄭信永)으로서 지난십륙일 도적한 물건을 시내 모전당포에 잡히려갓다가 또다시 종로서형사에게 붓들린것인데 지은죄는크고압흐로 감옥사리를할것을 생각하니 몸서리가나도록 무서워서 차라리 죽어버릴양으로 나흘전부터 단식을시작하야 드듸여전긔와가티 뇌빈혈을이르킨것이라고한다

길에서遺腹女出産

시흥군 과천면주암리(始興郡果川面注岩里) 리순재(李順宰)라는 여자는 이십일일 오전열한시가량되여 자긔의 시아주버니되는 김백룡(金白龍)과 함께 공덕정(孔德町)근방에잇는 자긔의 일가집으로 가든길에 금정(錦町)아백사번지아페 이르자갑작히 복통을 이르키며 꼿가튼 계집애를 해산햇다。 이광경을본 미생정(彌生町)철도선로안 이십칠호관사에사는 림귀봉(林貴奉)씨는 모녀를 곳자긔집으로 데리고가서 국밥을끄려 먹이는등 간호에힘쓰고잇다。 산모되는 씨는 지난봄에 남편을 여이고 홀몸으로 지내오든중 마침내유복녀를 나케된것인데 이정상을 들은 그이웃사람들은 그를가엽게 여기여 십여원의돈을 모하가지고 갓난애의 옷감을 끈어다주는등 동정을 긔우리고잇다한다

蘇聯通諜事件에 體刑과追徵金
三名에八年、七年、四年의言渡
廿二日淸津法院에서

【淸津支局特電】소련방의 께·페우와 통모하야 북조선일대의군사상비밀을 내정하얏다는혐의로지난 십오일청진지방법원에서제일회공판이개정된 최남송(崔南松)외이명에대한 언도공판은 이십이일오전십시 동법원에서 호전(戶田)재판장 백(白)관(管)배석판사립석 (李)검사립회하에개정되엿는데 결국다음과가튼 언도가잇섯다

▲崔南松 懲役八年(追徵金三百三十圓)
▲崔永柱 懲役七年(追徵金二百二圓)
▲金鍾浩 懲役四年(追徵金六圓七十錢)

拳銃自殺未遂
承諾업시丸山氏를社長으로
拒絶當하자株主에無顏으로

부내한강통(漢江通)삼번지황한당(皇漢堂) 약방주인 상전영작(桑田榮作)은 이십일일아침자긔집에서 권총자살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못하고 단지가슴에 경상을 입은채 졸도되여 잇는 것을 집안사람이 발견 즉시성대(城大)부속병원에 수용햇다。 그가자살하려든 원인은 자긔가 최근 조직하고잇든 황한제약주식회사에 귀족원의원환산학길(丸山鶴吉)씨를 사장으로 추대하고저 여러번 공상적운동을 해보앗스나 이방면에평소 생각이업든 환산씨는그에응할리가업서 거절하엿다 그리하야그는 이미 환산(丸山)씨가 이회사의 사장이된것처럼 발표하고 주식모집을 하고잇는중에 잇는바 지난번에 환산씨가 입경하자 사장직임을 다짐하라고 면차례 교섭해본것이 준렬한거절을 당하고보니 그는 마친내이미 모집한주주들에게 대할면목이 업슴으로 이와가티 자살을도모한것으로 전긔환산씨는 이회사와는 전연관계가 업는것이라고한다

아이들의路上 遊戲는禁物!

어린애혼자 길에서 논는것은

京城防護團總動員
綜合演習等盛大히擧行

경성방호단(防護團)에서는 이십이일오전여덟시 오후한시 세시등의 시간순서로 부내열여덟곳에서 예행훈련(豫行訓練)가정방호(家庭防護)종합연습(綜合演習)등 여러가지 연습을실시하엿는데 공중에는 평양(平壤)비행련대의 중폭격(重爆擊)수대가 날려와서 소이탄(燒夷彈)과 독와사탄(毒瓦斯彈)등을 던저서시가에 화재를이르키는등의 실연을하야 공중습격의 실황을 일반에게 인식시켯다 (사진은 소방대의 활동)

今夜 午後七時부터 京城運動場(庭球場)特設링
世界的拳豪 徐廷權復讐拳鬪戰
主催 東洋拳鬪會後援會・後援 朝鮮日報社

最后까지 달니여라 勝利의 月桂冠을 차지하랴면
蔘茸精을 服用하라 健全한肉體美는 그대것이니

不老! 長生!

여름철더위와지리한 장마에지친몸을 恢復식혀야할가을은왓다 어떼를일치 말고時刻을다투어라服藥의첫가을을!

◎必欲長生者는
◎必飮蔘茸精하라

이것은 現代巨星頭山滿翁이쓴 蔘茸精讚詞中에 一節이니와 果然不老長生의 秘方藥은 우리손에 쥐여진것이외다

◉三神山의 不老草를꿈꾸어무엇하며 三千甲子董方朔을 부러워할것무엇어리요

◉病弱으로 苦痛하는어나 肺病으로 死刑宣告를바든이는 조곰도 근심하지말고 한시밥비 蔘茸精을쓰시요

一滴千金의 이蔘茸精이야말로 健康을 防害하는 모ー든病魔를물니치고 高速度로 新進代謝作用을하는것입니다

蔘茸精의特長

一、이약은다른蔘茸劑와달나서 人蔘과 鹿茸의精分을 新藥化學的方法으로 露出配合한外에 有機燐分等數種의高貴强壯劑를合理的으로 配合하야잇슴으로
二、如何한體質에나 맛지안흠일이업는것
三、如何한病弱者라도단하로만 服用하여도 顯著한効果가나타나는것
四、이약은液劑인고로다른丸劑와가티짐체하거나 服用後에도即時効力이나타나지안는일이업시 服用하면 即時 全身에퍼저效力을보게되는것

九大醫學博士有効證明

이런症勢잇는분은 한시밥비쓰시요!

◎夏節疲勞로因하야食慾이減退한데
◎肺結核初期나二期로苦痛하는이
◎陽氣不足으로因하야靑靑한老人이된이
◎胃腸病으로因하야恒常苦悶하는이
◎貧血症으로因하야얼골이蒼白하며手足이冷한이
◎神經이衰弱하야不眠症으로苦生하는이
◎小兒發育不全 産前産後諸症

500瓦 250瓦

日鮮藥各有名藥店에서販賣합니다

京城櫻井町五五 製造發賣元 朝鮮商會 電話光一七八五番

蔘茸精
高速度補血强壯劑

악질을 전멸합시다

림질치료원리 (治療原理)

림질은고노쿠겡이라는림질균(淋菌)을가진남녀의성교(性交)로인하야그균이생식기로드러가서전염번식하야생기는병인대림균은특히강렬(强烈)하야뿌리가(淋絲)성하게뻐처서번식하는성질이잇으므로날이갈사록신체내부로기피드러간다그럼으로방광염(膀胱炎)고환염(睾丸炎)『산동』자궁내막염가튼의합한중세로변하기쉽다그런대병균이사람의피부로드러오면혈액(血液)에잇는백혈구(白血球)가그병균을막어업새기위하야곳맹렬히싸홈을하는것인대만일그균이강하면백혈구가도리혀죽게되나니이죽은백혈구가곳고름이라외가티신체속에는균을막어업새는힘이천연으로잇슴으로조금만힘을도아주는약이합리적(合理的)으로드러가면당연히병균을전멸할수잇다이러한병리가(病理)파명되야다년연구한결과림질치료원리(淋病治療原理)가발견되엿다

一、림균은뿌리가깁히박히는성질임으로내부로부터그뿌리를아조업새지아니하면초목에새싹이다시나듯시병이다시도지게되야거구하지안한다

二、사람의신체에는천연적으로혈액중에백혈구가잇서서균을막어업새는힘이잇슴으로잘균을업새는약제가조곰만드러가면균이깁히못드러가게할뿐아니라전부몰사식힐수잇다

三、위장으로흡수안하야염증(炎症)을아물게못하여도리허연약한점막(粘膜)상하게한다

四、약이위장으로흡수되여신체가부를거처방광을통하야요도에까지이르면병균을완전히전멸식힌다

五、외치료국부에넛는약이나주사약은일시적으로는[illegible]하며병균이안죽고도리혀약을피하야[illegible]하다하물며깁히박히병균은절코[illegible]되지아니하야다시재발되고또한그병균은더욱강하게되어악성으로변한다내복약을먹어생리작용으로신체내부에흡수되여속속드리백힌균과뿌리를말녀죽여야되다약이혈액중의백혈구와합력(合力)하야천하무적(天下無敵)의강병이되여아모리완고악성의림균이라도씨도남기지아니하고전멸식힘으로다시후환이업시깨끗하게되나다결국합리적고귀한약으로된내복약구로벨을써야한다

구로벨 일주일분이 오원 이다(일주일분이 오원이라는약은내외국을통틀어도귀하고드물다)

다른약은대개一、二원으로부터二、三원이다

왜그러냐하면 구로벨에는 엇기어려운고귀한약제가만히든고로 그럿타

결국 병이 속히 치료되는것이다

값싸고오래먹는약은 효력이업스니 결국값시싼것이아니라병만점점더심하야지고 돈만거저내버리고만다

림질에대하야

전염한지 이삼일 또는 일주일내에 발생하며 한달후에 발생하기도한다 중세는 년령체질에따라 다르나대개는 젊은이는 로인보다 중세가 심하고 급하다

◎**급성** 림질에도 두가지가잇스니 전부뇨도염(前部尿道炎) 후부뇨도염(後部尿道炎)이다 ◎전부뇨도염은 전염된지 일주일이내에 오좀구멍이 부어 부르트는고로 몸시 신곳치 따거웁고 오좀이 자조마려웁고 방울방울 떠러지고 아프고 쓰러고 칼로 점이고 고초가루를 뿌린것갓고 그리하야 신곳까지 부어서 열이나고 가래톳이스는일도잇다 몸이 피곤하고 음식맛이 젓치고 신경쇠약이되고 잠을못자고 아푸고 심하면 피고름이 나기도한다

◎**후부요도염**(後部尿道炎)은 一二三주일되도록 부수의하면 림균이 속으로 들어가서 오좀구멍이 전부 헐게되는것인대 오좀이 자조 마렵게되고 신이 끈허지는것가치 아푸고 심하면 오좀이 안나오는일도 잇고 심히 아푸며 홍문까지 빼치고 무지룩하며 신열이 삼십팔구도 나는일도 잇는데 대개는 불합리한약과 치료로 이중세로 변하는 일이만타 그럼으로 신에서고름이나고 아푸거든 한시각이라도 속히 약을 써야한다

◎**만성림질** 은 급성을 잘고치지아니하고 몃칠지나면 만성으로변하야 병세가 오래가고 별별식성으로변하는법이다 이중세에는 오좀이 혼탁하고 림사(淋絲)가잇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좀구멍에 그름이 말러붓고 짜면 고름이나고 심히 아푸지아니하나 고름이 독하야 눈에드러가면 눈이먼다 그리고 심히 아푸지 아니하나 때때로 아푸고 가려웁고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확끈확끈하고 찌뿌드드하고 오좀눌때는 오좀이 두갈내로 나오는일도 잇고 그리고 몃해후에 요도협착증(尿道狹搾症)이 되야 오좀통이 터지게되는일도잇다 림사(淋糸)는 곱부에 오좀을 밧어서보면、실가치 뜨기도하고 벌레가치 동굴한것도잇다 곱부둘을가지 오좀을 밧어 처음 곱부에 림사가잇스면 전부(前)요도염이오나종 곱부에잇스면 후부요도염인대 후부요도염은 림균이 깁히드러간것이다

◎이러하신분은 구로벨을 쓰시오

특제 구로벨의 효능

남녀만성림질(男女慢性淋疾) 림독균대하증(淋毒菌帶下症) 並製外、요도염(尿道炎) 고환염(睾丸炎)、방광염(膀胱炎)、섭호선염(攝護腺炎)、여자오좀소래(女子消渴)、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並製外、라팔관염(喇叭管炎)、란소염(卵巢炎)、림독성제증(其他淋毒菌起因諸症)

약값 특제 구원 만성용오원 급성용삼원이오 오원이나 상원이나 다일주일분이오 위장을상하지아니합니다

京城西大門入口 (제일큰배오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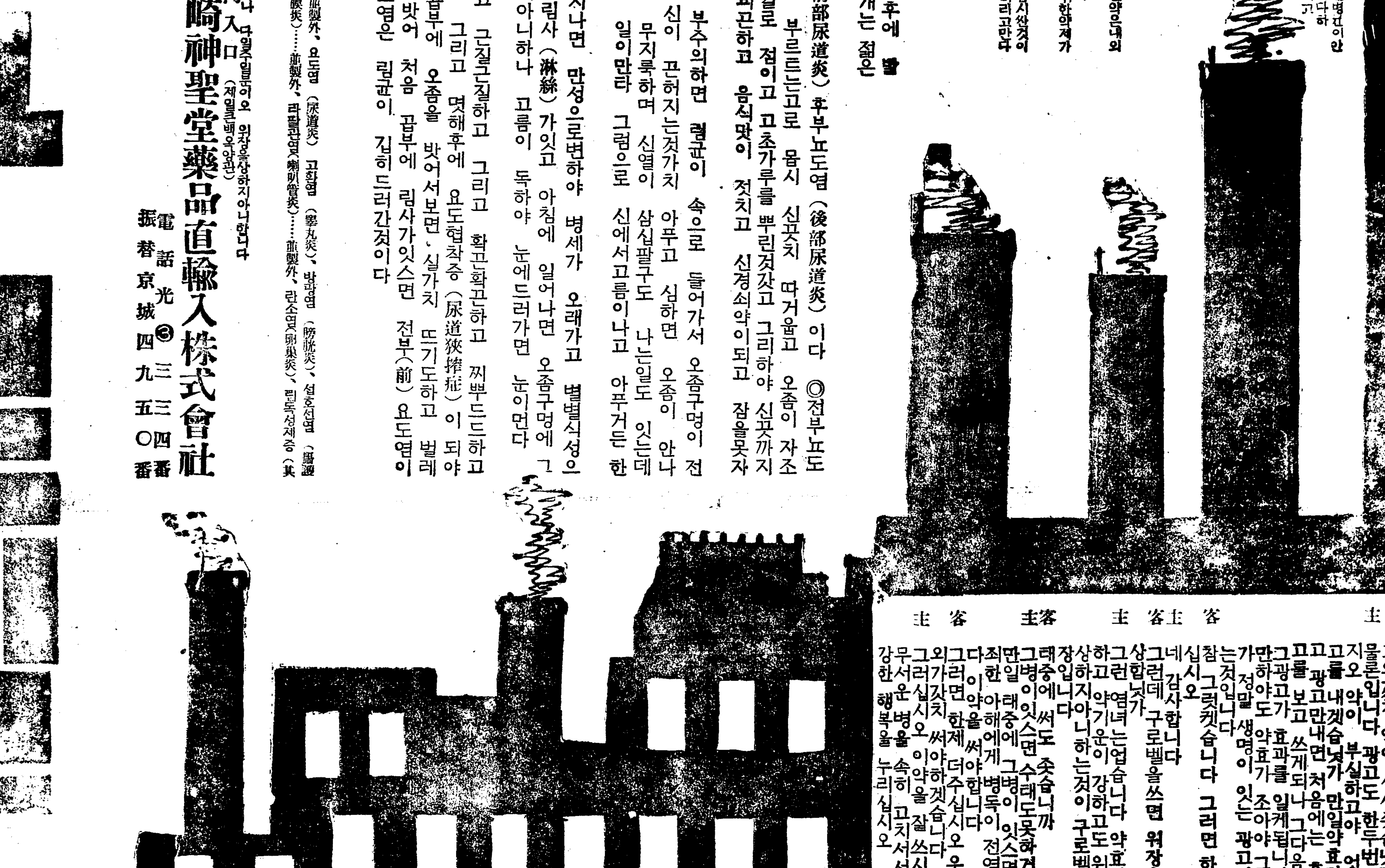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③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림질、대하증、냉병、명약

약효가제일 급속합니다

구로벨



眞實한對話 (진실이약이)

客 림질에 조흔약이 잇다지오

主 네 잇습니다 구로벨이라는 약입니다

客 잘 듯습닛가

主 잘 듯습니다 약을 쓰신 분들이 증명하십니다

客 광고로도 잘 보앗습니다만은 광고와갓치 약이 실상 춧습닛가

主 물론입니다 광고도 한두번 말이지 약이 부실하고야 엇지 광고를 내겟습닛가 만일 약효가 업고 광고만 내면 처음에는 혹 [illegible] 고를 보고 쓰게 되나 그 다음에는 그 광고가 효과를 일케 됩니다 만하야도 약효가 조아야 그 광고가 되고 가 정말 생명이 잇는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客 참 그럿켓습니다 그러면 한제 수십시오

主 네 감사합니다

客 그런데 구로벨을 쓰면 위장은 안상합닛가

主 그런 염녀는 업습니다 약효가 속하고 약기운이 강하고도 위장은 상하지아니하는것이 구로벨의특장입니다

客 태중에 써도 춧습닛가

主 그 병이 잇스면 수태도 못하거니와 만일 태중에 그 병독이 잇스면 전염됩니다 무죄한 이 약아해에게 병독이 전염됩니다 이 약을 써야 합니다

客 그러면 한제 더 주십시오 우리내 외가 갓치 써야하겟습니다

主 그러면 이약을 잘쓰시고 무서운 병을 속히 고치서서 건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支社長 金[illegible]　光州支社
-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六〇　支社長 宋淳[illegible]　海州支社
- 京畿道水原郡邑南昌里七四　支社長 李光[illegible]　水原支社

京城之部代理店

-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 鍾路三丁目　鄭一藥房
- 仁寺町　富仁藥房
- 阿峴　春山藥房
- 南大門通二丁目　富士屋藥房
-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 鍾路二丁目　白楊堂

京畿道之部 代理店
-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忠南之部 代理店
- 天安邑內　徐光年

慶南之部 代理店
- 龜浦　朴基煥

黃海道之部代理店
- 黃海道長淵邑　金星藥房

咸南之部 代理店
- 端川郡汝海津　鶴仙藥房
- 永興郡宣興面　嚴龍得
- 漁大津　閔泳燾
- 咸興府本町二四　三省堂藥房

咸北之部代理店
- 惠山線合水驛前　永生堂藥房本店　油潤衛

京城之部 特約店
- 京城府淸涼里町一二九　德仁百貨商會

京畿道之部 特約店
- 仁川府外里　中和堂
-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 金浦邑　回生堂藥房
- 開城府都橋市　ヘヤシ藥房
- 始興郡新東面平眠里　李鍾英
- 永登浦　裵振璨
- 龍仁郡南西面鳳鳴里　李相瓚
- 水原郡鄕南面發安里　金佑鉉
- 漣川郡南面華山里士橋場　李殷傑
- 京畿道水原邑內　金德根藥房
- 京畿道陵谷驛前　陵谷藥房
- 京畿道素砂驛前　和春商店
- 永登浦町五三三　徐順奉
- 楊平郡龍門面新店里　神聖藥房

忠南之部 特約店
- 大田府大東町四九　朴玗均
- 洪城邑寶農園　李康俊
- 成歡驛前安成商店　宋季逸
-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 公州郡錦町　權明順
- 全義驛前　鄭寅九
- 忠南溫陽溫泉　溫陽藥房

忠北之部 特約店
- 淸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韓信藥房
- 忠州錦町三八　朴綺陽藥房
- 忠州邑淸水町一二〇　錦北藥房

全南之部 特約店
- 順天邑金谷里　金誠藥
- 潭陽郡大田面谷城里　丁判變
-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玉山堂藥房
- 海南郡邑內　千珍玉商店實業部
- 全南郡山府藏財町一四五ノ三　中一藥房

全北之部 特約店
- 金堤邑內　鍾東藥
-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廷鎬
-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極
- 益山郡王宮面興岩里　金永韻
-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二　朴[illegible]煥

慶南之部 特約店
- 京釜線勿禁驛前　大光藥鋪
- 咸陽郡安義面錦川里　崔再局
- 河東邑　壽生堂藥房
- 晉州邑昭和町大明堂　金三珠
- 晉州邑明治町　鄭元春
- 晉州邑日出町一〇九　金一藥房
- 晉州邑日出町六[illegible]　金成藥房
- 晉州邑日出町　大黑洋洋堂
- 晉州邑榮町　ツバメ藥房
- 馬山府俵町　李鉉秀
- 馬山府石町　五行堂藥房　天和藥房
- 釜山府寶水町義宗號　韓明東
- 馬山郡昌良面開谷里一六　孫秀振
- 馬山郡凡西面斗山里　韋榮振
- 居昌邑內　朴慶龍
- 密陽驛前　松山堂藥房
- 南海　華生玉
- 泗川郡西浦面舊坪里　金[illegible]玉
- 晉州郡邑明治町五五　金元春藥房
- 馬山府富町市場入口　平和堂藥房

慶北之部 特約店
- 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朴基齋
- 尙州郡邑外畓里　權[illegible]入
- 善山邑本町　金亨變
- 盈德郡丑山面[illegible]　金春淑
- 善山邑內　新生堂藥房
- 佛國寺驛前　金觀書
- 大邱府達城町三〇　姜入岩商店
- 淸道郡華陽面松金洞　鄭璟桓

江原道之部 特約店
- 金化郡邑　金化藥房
- 江陵邑內　黃德源
- 原州郡原州面花月里二〇四　金鳳蠶
- 金城驛前　文化商店
- 原州郡富論面興湖里　禹在根
- 洪川郡化村面君業里　申批均
- 平康郡福溪驛前　丸寅商會
- 鐵原邑中里　協成堂藥房
- 元山府南村町二四　金元輔藥房
- 元山府鹽石町一　東明堂藥房
- 元山府　岩師商店
- 甲山郡惠山鎭本町　李昌旭
- 興南驛前九龍里　日天堂藥房
- 咸南北靑郡下車書面萬春市　姜完洙
- 咸南馬場驛前　大盛堂藥房

黃海道之特約店
- 載寧邑內　金宗書
- 鷄井驛前　金鷄商店
- 鳳山郡德在面赤城里間坊　李涼芳
- 海州邑北旭町二五七　孔觀五
- 信川郡龍門面福隅里　盧五契
- 延白郡彰德里　吳弱醫
- 海州邑內北幸町三六五　林官浩
- 安岳邑內　朴俊鎬
- 載寧邑內　朴雲影
- 南川驛前　金容大
- 沙里院本町通　[illegible]和堂藥房

平南之部 特約店
- 平壤府大和町通　石川赤門堂
- 大同郡斧山面中二里　金鋪容
- 肅川驛前　金應朔
- 龍岡郡海雲面城峴里　鄭鳳鎰
- 龍岡郡海雲面龍井里　李亨植
- 安州郡立石市 李觀信　活信藥房
- 平壤府南町四一　柳原藥房
- 平壤府橋口町四〇　尹炳

平北之部 特約店
- 平南价川驛前　康慶健
- 碧潼邑內　金泓官
- 滿浦線香山驛前　朴琛瑋
- 龍岩浦農民共生組合　金興澤
- 宣川邑川北洞　福山婦人商會
- 鐵山郡邑內　安東商店
- 江界郡公北面香河洞　李鍾松藥房
- 熙川郡邑上洞八五　韓用俊
- 宣川邑川南洞　回春藥房
- 新義州彌勒洞　廣世藥房
- 寧邊驛前　[illegible]藥房
- 定州郡大田面雲鶴洞　凰和藥植
- 雲山郡北鎭市　天壽堂
- 雲田驛前　春山藥房
- 新義州府眞砂町　數世藥房本店

咸南之部 特約店
- 新浦邑內　鄭安藥房
- 定平郡新上驛前　春起藥房
- 永興郡[illegible]寧面三湖里　金允吉
- 豊山邑內市 義信商店　洪淳義
- 長津郡[illegible]內面上梅田里　姜基順
- 新高山驛前　曾惠藥[illegible]
- 北靑邑 壽世局　金裕乾
- 北靑驛前　五六藥房
- 北靑郡[illegible]東書面萬景市　姜完洙

咸北之部特約店
- 吉州邑內　壽星藥局
- 城津港旭町　晉信堂藥房
- 城津郡鶴南面禮洞　李柄秀
- 雄基港本町　迎春局
- 會寧邑大正通　世一堂藥房
- 城津港旭町　壽榮堂藥房
- 淸津府新岩洞　海東藥房
- 朱乙驛前　北一堂藥房
- 明川邑明川洞　新盛商店
- 雄基上本町　十字堂藥房
- 雄基邑本町　仁壽堂藥房
- 雄基邑本町　信生堂藥房
- 羅南邑初瀨町　益壽堂藥房
- 城津邑旭町　萬壽堂藥房
- 羅南邑生駒町　靜圓堂藥房
- 明川郡下加面漁浦區內[illegible]　孫龍瀷

鮮外之部 特約店
- 名古屋市南區中山町　平和堂
- 島根縣美濃郡近見上村小原　片古吉
- 間島龍井市大通路　永生堂藥房
- 安東縣平場通九丁目三番地　吳昌昨
- 滿洲國三江省依蘭縣三姓市南廟前　德昌藥房

꼬조로 더픈 호수에 발 담그는 아가씨

구라파의 저북쪽 호수만키로 유명한 「스웨덴(瑞典)」이란 나라, 그나라에서도 물의 고장으로 쳐는 「다라르나」지방의 호수풍경입니다 어름과 눈의 「스캐디네비아」반도의 눈이 녹으면 그다음에 오는것은 봄입니다 그러면 어렴다 녹은물도 차츰 따뜻해지겟지요. 호수의 물을 뒤덮을듯이 귀여운 아가씨와 이나라의 아가씨들은 혼자서도 「뽀―트」를 저어 거울가튼 물위를 손드렌미처럼 달립니다. 그러다가는 꼿에패와서 배를 멈추고 한가히 물에 발을 담급니다.

쉬웁게 보여도 실상 힘든다 게장을 담그는법

수컷보다도 암컷, 죽은것보다 산것 장도 함부로 붓지말것

모냥은 그로테스크하나마 선선한 미각을 자아내는것은 게장입니다. 요사이 담근게장은 룻게장이 되어야 장이 잘들지는 안하지오만 그래도 감칠맛이 엇는 게장에는 변함이 업습니다. 한참은 못된병을 전파시킨다고 매매를 금지하더니 수년래로 어떠케 해금이 되모냥입니다. 이블록 저블록으로 게장사가 들어내노코 쏘다니는것만 보더라도 아모일이 업는까닭일것입니다. 그러나 게장도 담을탓, 게장이라고 다만난것은 아닙니다. 못처럼 담것다가 맛이 업서서는 면목이 업스실듯, 그방법을 소개하야 드리겟습니다.

첫재로 수컷은 골라서 딴 요리를만들어 가시고 암컷만장으로 담거야 합니다. 수컷은 볼래부터도 암컷보담 장에 적지만은 룻게에이르러는 더 한층 심합니다. 그런데 암게와 수게를 어떠케 구분하느냐 하면 아조 쉬운 방법이 잇습니다 암게는 배스댁이가 동그라코 수게는 배스댁이가 장구형상으로 되야 잇스니까 그것만 보아서도 알아낼수 잇습니다.

둘재로 산것만 골라서 장을 담그고 죽은것은 뻐려쓰는것이 조흡니다. 죽은 게를 장으로 담거서는 고리어서 먹지를 못 하게 됩니다.

셋재로 큰것만 골라서 장을 담그고 적은것은 딴데 쓰는 것이 조흡니다. 적은게는 장이 변변치 못하야 소용업는 수고만 하게 됩니다.

이러케 게부터를 고르지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장담글 준비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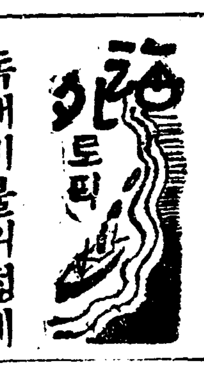
×

맑은 물에다가 게를 한마리 한마리 집어 너코 솔로 북북 문질러 가면서젓부터 닷습니다. 밤사이 배레기등이 닷는고 쌧어서 그롯을 닷이 닷습니다. 그래서는 항아리에다 엉지고에나 너코 꺼꾸로 어퍼 놔두면 게들이 거품을 문하야 냄니다 그런뒤 그 게를 다시 한번 맑은 물에 헹구어서보를 두가장을 부어 하룻쯤 둡니다. 게들이 그간장을 드러마시다 토해다 해서 그 간장은 아조 더럽게 될것이 아니것습니까? 그간장은 물론 떠러버려야 할것입니다. 그러는한편 정작진간장에다 생강, 마늘, 고초를 알마치 너코서 폭폭다리어서 시키지 안습니까? 몬저ㅅ간장을 딸아 버린후 다려서 시킨 그진장을 부어 놉니다.

×

그러나 한번만 그러케 부어 두어서도 못 씁니다. 하로에 한번씩 서너번쯤은 그간장을 도로 딸어 내어서는 다시다리고 또 시키고 해서 부어야만 합니다.

요사이 담그는 게장은 한사날만에도 곳잘 익습니다. 아조 넉넉잡고라도 대엿새만 되면 맛이 폭 드러버린답니다. 그런데 흔히 게딱지를 미리 제키고 그속에 이런것 저런 것을 한데 너허서 담그기도 하나 그것은 게장맛만 버리는것으로 오히려 재미업습니다. 그저 산게가 제일으로 간장을 드리마시어서 간이들도록 되야만 게장맛이 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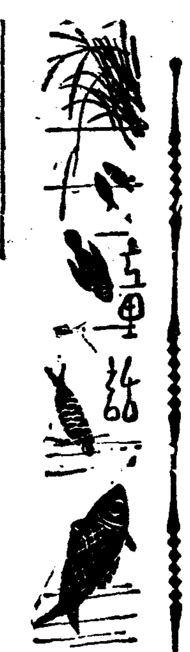


에피소드 토픽 독개비불의정체

미국우룩랜드에서 최근이상한불이 일어낫답니다 산떼미처럼실고가든 화물자동차의 짐에서불이 일어나서 자동차전부를 태워버리엿답니다 하도 이상한불이 일어낫다고 경찰서에서조사해보앗스나 도모지 불이일어날만한 물건은 하나도 실흔일이 업슬뿐아니라 운전수가 담배도 피울줄모르는 사람이엿답니다 나종에 알고보즉 의외에도 짐우에 언처두엇던 유리그릇이 마치화경처름 생겻더랍니다 이것이 해비처 강하게 비치어서 그미테잇는 물건에 불이 댕긴것입니다

자미잇는이야기 물것의 고기잡이

徐幼亭



옛날 어느조그마한 마을에 이, 벼룩, 빈대 세친구가 사럿드랍니다.

어느날 벼룩이 짱충 짱충 뛰어오드니 이를 보고 하는말이

「여보게 이친구 요새날이 이러케 조흐니 오늘은 우리 배를 타구서 고기잡이나 갈까?」

하엿습니다. 느릿느릿한 이친구가 가만히 안저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날이야 자네가 일캇지나? 공연히 갓다가 바다에서 바람을 맛나면 어떠케겐」

하면서 그다지 질겨하지안는 기색이엿습니다.

「이친구야 뭘그러나 그러케 겁이 만하서야 땅이꺼질까바서 어떠케살겟나? 바람은 그러케 별안간 부는건가 뭐, 그런걱정말고 어서가세 너무 그러면 끈담일취고 섬미레 못갈친구란 말을 듯는니. 자아 어서 이러나게 웅 어서 이러나」

벼룩은 이러케 떠들면서 뚱뚱하게 안진 이를 억지로 이르켯습니다.

워낙기 남의말을 뚝 잘라서 거절하는 용기가업는 이친구라 이번에도 못니기는듯이 이러섯습니다. 하나는 느릿느릿 또하나는 까불까불 이러케 두친구가 바다로 가는길에 빈대를 만낫습니다.

「요오, 이거빈대군 아닌가?」

「야아, 자내들 어델 가나?」

「응! 우리 두리서 고기잡이를 가는길일세」

「어대로?」

「어대로가 뭐가 바다로 가지, 자내도 한번 가려가 볼려나?」

「어이구 실혀! 난 물을 보면 질색 이닌까......」

빈대는 고개를 흔드럿습니다.

「허허허 누구는 물이 무섭지안나머! 그런걱정은 말게 물에뛰어드려서 고기를 잡는지 아나? 아닐세 아니야 배를 타고서 그물로 다잡는걸세. 걱정랑 내지말구 어서가세.」

벼룩은 방정맛게 까불까불하면서 빈대어깨다 팔을틀어끼고 아프로 끄럿습니다. 빈대는 벼룩의 떠드는소리가 그럴듯 하엿든지 그대로 끌려갓습니다.

새친구가 바닷가에 왓습니다. 버들 넙사귀 배에, 솔닙 돗대를 세우고 바다ㅅ가에 사는 거믜아저씨에게가서 줄을 잠간 빌렷다가 그물을 만드러서 실고는 「이만하면 되겟다」하고 우스면서세친구는배를 바다우에 띄웟습니다.

버들 넙사귀 배는 이, 벼룩, 빈대 세친구를 실고 물 우에 동동 뜨엇습니다.

이와 벼룩은 노를 젓고 빈대는 키를 잡엇습니다.

「어여 디어차!」

「어여 디어!」

이와 벼룩이 소리를 하면서 삐걱 삐걱 노를저으면 빈대는 뒤에서 키를 잡고 안저서 잇다금식

「그러치 그러치」

「어리 시구」

이러면서 흥을 도닷습니다 이러케 한참을 저어서바다가운대 왓습니다.

고개를 드러보니 사방이 툭 터진 바다와 하늘이오 물은 푸르둥둥하야 무섭중이 낫습니다. 고기들은 수업시 떼를지어서 이리로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합니다.

세친구는 한참을 아무말 업시 가슴을 오그리고 눈만 부리 부리 뜨고 잇섯습니다.

그러케 까불든 벼룩도 이러케 넓고기픈 바다한가운대를 나오고보니 겁이 낫든것이엿습니다. 그러나 세친구는 용기를내엇습니다. 아랫배에다 힘을 불끈 주고 이러서서 그물을 추려가지고 물에 떤젓습니다.

이때엿습니다. 별안간 바람이 스르르르하고 부러오더니 물결이 울렁울렁 이러나고 배가 뱅뱅 돌기시작합니다. 그물을 잡고섯든 세친구는 얼굴이 파러케 질렷습니다.

淸雲公普運動會

이십일일 새벽에는 비가오고 아츰밥을 먹을때도 날이 흐려 어린가슴을 몹시 태웟섯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야 해님은 구름장막을것고 해죽웃음 어린이의 노름을 귀엽게 보시고 무럭무럭 자라게하셧습니다.

『선우리』선생 석별기 ―녀자교육계의 은인―

평양숭의녀학교(平壤崇義女學校) 창립자 선우리(鮮于理)선생은 오는이십삼일 귀국(歸國)의길에 오르리라한다. 선우리선생은지금으로부터 삼십육년전에 미국(米國)북장로교 외국전도부(北長老派外國傳道部)의 파송(派送)으로 조선을 차저 평양에숭의녀학교를 창립하고 삼십육년동안을 조선녀자교육에 헌신하엿다. 선생이 이땅에 발을 드될당시에는 홍안(紅顔)의 젊은시절이엇것만 어느듯 칠십일세의 로령으로 금변이 선교만기(宣敎滿期)에 이르러 정년이되엇고 또한 로쇠한몸인지라 여생을의탁하고저 귀국하시기로 되엿다한다. 백발(白髮)을 날리며이땅을 떠나는 선생의 감개도무량하겟거니와 선생을 보내는우리의 마음이 어찌 섭섭지안흐랴. 선생을 생각하는 남어지생각되는대로 적으려한다.

◇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아득한 삼십육년전 아직도 외래(外來) 학문에 눈을 뜨지못하고 한학(漢學)에만 열중할때 태평양(太平洋)저편에서 홍안(紅顔)의처녀 한분이 동방(東方)의 조선을 차저 발을 드되엇다.

「그때 조선에는 지금과가티 기차가 통하지 안하엿소. 부산(釜山)에서 인천(仁川)까지 배를 타고왓소. 평양으로 올때에도 인천서 진남포(鎭南浦)까지 배를 탓소. 기차라고는 인천서 경성까지 통하는것뿐이엇소」 두눈을 까막까막하시며 애기한다. 『그때 나는 매서을 서울에 들럿기때문에 서울서는 정신녀학교(貞信女學校)에서 일년동안영어(英語)를 가르키고 조선말을 배우면서 조선풍속과 사괴기에 노력하엿소』 선우리교장 말슴에 의하면, 그이듬에 평양으로와서 어느 목사의집 방한간을 빌어교육과 전도사업을 시작하엿스니 학생이 도모지 일곱명, 그러나 글소리와 찬송가 소리는 쟁쟁히 울리기 시작하엿다. 그다음다음 해에는 숭의녀학교(崇義女學校)란 간판을 정식으로 걸고 제일회 졸업생을 내이엇는데 그중에는 이미 작고한분도 잇거니와 현재 숭의녀학교의기숙사 사감(舍監)으로 계시는 김명준(金明準)선생과 평양부내에서 개업하고계시는 정애여(鄭愛汝)씨가 제일회로 졸업하신분들이라한다. 원래에 숭의녀학교는 역사가 길고 조선서 외국선교사의 경영하는 학교에서 최고라 할만큼 게교당시에 삼십칠세의부인이 끼어잇섯다하며 그이가지금칠십세의 노령에 달하엿슬것이다. 그리하여 이학교동창회에 한번참석하여보면 머리하얀로친들이 새파란처녀들틈에 끼어안저잇슴을 볼수잇다.

선우교장이 저러케 노력에이론 눈동안 어느듯 삼십육년의세가 바뀌어 이교문을 두다린 조선의 딸들이 적은 수효가 아니다. 본과(本科)졸업생이 근백 삼팔인 재로 사범과(師範科)출신인 보육과(保育科)에 일백사십사인의 다수에 달하거니와 현재재학생이본과에삼백삼십인보육과삼십인이다. 선우교장의 업적은이로써 끄치는것이아니다 그가고국으로 돌아가드라도 그의손으로 닥거노흔 조선딸들의 배움의 전당(殿堂)―숭의녀학교는 그의 놉고 갸륵한 정신을 천추만대에 이르기까지 구현하리니 육천여평의 교지에 일천사백여평의 건물이 교사(校舍)로 되어잇다. 학교의 설비내용이 타지방 어느학교에 비하여 손색이 업슬뿐 아니라 저러케설비를 충실히한학교를 처음보앗노라고 서울서 온사계의 명사한분이 감탄함을 들은일이잇다. 그러니 선우교장이 저럿듯한 사업에도당이 연한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선우리씨는 학교창립이래 교장으로계시엿스나 매사에 손수 간섭하시고 번만하심을 미안하게 생각하시엇슴인지 지금으로부터 륙변전 一九三一年에는 현교장소안연(蘇安然)씨에게 교장의자리를 내어맛기고 배후에서 학교일을 담당하시엇다.

애기들 말잘못가르키면 말더듬 된다

유치원, 보통학교시대에 제일만히되기쉬워

말더듬는아이들은 자긔의말투를 늘 부끄럽게 생각해서 지나치면 자살하는수도잇고 그럼치안흐면 남을대하기 시려해서 고독히지나는수가만흔데 이야말로 성한사람이생각할수업는 딱한정상입니다

◇

말더듬는것이 벙어리냐, 죽 말더듬는사람은병신이냐하면 그런것은아닙니다. 말하자면 말하는데 잇서서의 신경쇠약에걸려 발음법을 모르는까닭입니다. 이것을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발음하는데 필요한 호흡운동과 성대를 열고닷고하는 조절운동이 일치하지 못하기때문에 이러나는현상이며 또 심리적으로보다면 「나는 말을더듬는다」 하는 생각이 말하는데대한 자신(自信)을 엇게하는까닭입니다. 보통사람이말을할때는 입을버리기가 무섭게 호흡운동이 됩니다 다만 말더듬이는 호흡이 퉁키전에 입이 먼저 쭝긋 쭝긋해저서 몹시 초조해지는것입니다

◇

말더듬이가되는 직접의 원인을 캐어보면 백에여덟은 남의 말숭내내다가 되는것입니다 그외에는 노픈데서 떠러젓다거나 물에빠져 몹시 허더허더햇다거나 하는 공포가 원인이되엇다거나 인후병 열병 홍ㅅ도 뇌염 ......이러한 병끄테 생기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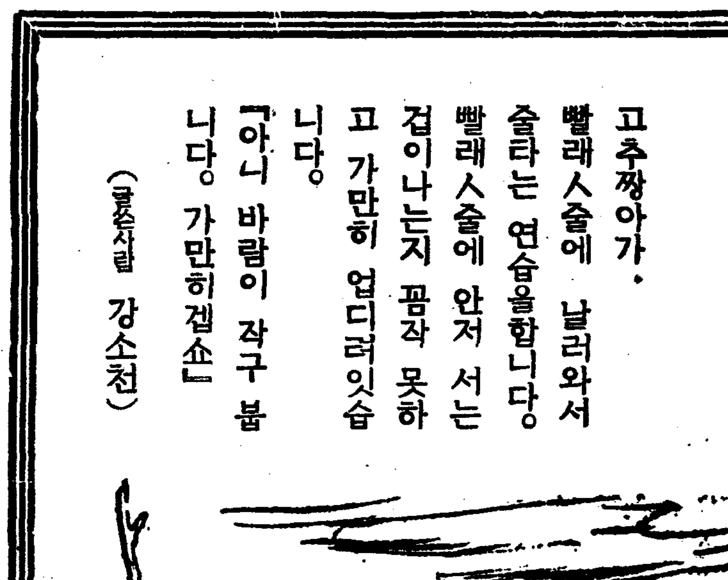
밥생하는 시긔를보면 대개 유치원시대와 보통학교시대에가장만허 학교동무들가운데 말더듬이가 한사람만 잇서도 그것을 숭내내다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어렷슬때 어머니가 너무 어린애들에게 가튼말을 작고작고 가르키는수가 잇는데 아이들은 가튼말을 작구작구 숭내내다가 그것이 원인이되여 커서말더듬이가 되는수도잇습니다. 그럼으로 어머니되는분은 이런점도 기피 생각하시어서 똑똑한발음과 말을 가르키시도록 하셔야합니다

◇

말더듬는 사람은 대개몸이허약하고 성질도수집고 예민합니다 그럼으로 말더듬을 예방하라면 먼저 귀한애기의 몸을튼튼히 해주서야되고 마음을 어째든지 맑게 너그럽게 가지도록 해가지고 함부로 꾸짓는일이 업시 우서가면서 천천히 여러날을두고교정하도록해야합니다

우리차지



고추짱아가, 빨래스줄에 날러와서 줄타는 연습을합니다. 빨래스줄에 안저 서는 겁이나는지 꼼작 못하고 가만히 업디려잇습니다.

「아니 바람이 작구 붑니다. 가만히겝쇼」

(궁정사립 강소천)

『영양』을 도으면 인제부터 살이 찐다

묵은쌀에는영양분이적어 무엇으로보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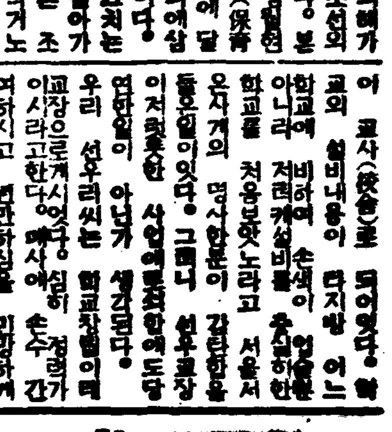
가을도 기퍼가고 곡식도 익어갑니다 신문에는 벌서 햇쌀(新米)이 나왓다고 보도 되여잇스나 그것은 극히 적은 분량이며 대부분은 아즉도 묵은쌀을먹고잇습니다 쌀이 새로나올때는 영양분이만코 생생하야 몸에 리로우나 요지음 우리네가 먹는 묵은쌀은 영양소가 모조리 쇠약해젓습니다 쌀속에 드러잇는 영양소로서제일만타는 「비타민삐」만하더라도 가을에 새로나온쌀에는 훨씬 드러잇스나 여름을지나고나면 그것이모다 깨여저버리고 날러가서 구월이나 시월쯤되면 하나도 업시모다소멸되여버립니다 그외의 성분으로서 효소(酵素)도비타민과 함께업서지고 설사 조금나머잇다하더라도 산화효소(酸化酵素) 라던지 「페르옥시다―제」가튼것은 전연맹아이어서 소멸되고 마는것입니다 사람의살이되는 단백질과전분(澱粉)―그리고 향긔도 업서지는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요지음 우리가 먹고잇는 쌀밥은 우리의건강을 도을만한 영양가치를 가지지못하고 다만 배를부르게할따름이니 달리어떠케 영양을 섭취하도록하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달리 영양을 구하는데는 될수잇는대로 「비타민삐」를 만히 섭취하도록하되 과실과 푸성귀를만히 먹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그밧게도 우리의 살을 찌게하는것은 지방질이나 지방질의 원료는 당분(糖分)입니다 우리의몸속에잇는당분은 여름동안에 만히소비되여잇스므로 이것을 보충하지안코는 살이찔수가 업습니다 그러나 여기한가지 아려둘것은 당분이 살을찌게하는데는 「비타민」의힘을빌지안흐면 안되므로 「비타민삐」를 만히 섭취해두어야한다는것입니다

今夜 『女人劇의 밤』

―七時半 府民館에서―



闘病秘訣

何故로梅毒을輕視하는가

梅毒性의發疹

放心하고治療를그릇치면 內臟障害를이르킨다

最近의實例

에原因을害虫에게쏘혀서人事不省이된다는이야기가잇다 이것은害虫의毒이 血液에混和하야 腦神經에刺戟한結果人事不省의重態가된것으로 꼭梅毒性의皮膚病이 이와同様으로外觀는微微한부름이지만 그病毒은 實로무서운것으로 이것을表皮만의症狀으로생각하면 큰잘못이다

第二期梅毒 부터三期까지

이마와목其他에 부룹가튼적은浮腫이지만 이것은形態에依하야小型丘疹 粟粒丘疹 巨大丘疹 環狀梅毒疹等의名稱이엇고 너무疹痛이업스므로 그대로放置하지만 이期를經過하면 必然코襲來하는 것은 重態時代로서

病理學上으로

고무腫이라 皮下組織에생긴다 고도해서고무상으로부터지고內臟學者의統計的調査에依하면 第三期第四期梅毒의 患者은患者의年令男女體質等에는 아무關係도업고 오직不完全한治療가根本的基因이라고한다 即治療를中絶하여放置하므로된다는것이라는것에一致하야 病理學上重病과 結核症도는痲痺과癡呆病하야 甚히治療困難하게된다 또이때는

頭髮과腋窩

의毛髮이나오고病毒은모다 破壞作用이잇고뼈筋肉 關節 五臟器으로 오므로 全혀不具者가되여 內臟에오면死亡한다이가리 (皮膚의부름도드디여이 慘害를입으므로 一日이라도 速히專門醫家의 治療를밧고 皮膚發疹에特效잇는驅梅內服藥ベルツ丸을服用하는것이가장 취틀어든治療이다

ベルツ丸은

非常히 強烈한藥効作用이잇고 血液과淋巴液에 潛伏하는梅毒菌을殲滅하는힘이잇고도體外排泄作用이 充分하야 新陳代謝가旺盛하게되다 따라서 食慾이增進하고 元氣를더하는것 이本劑의特徵으로서 他의追從을不許하는藥効이다 新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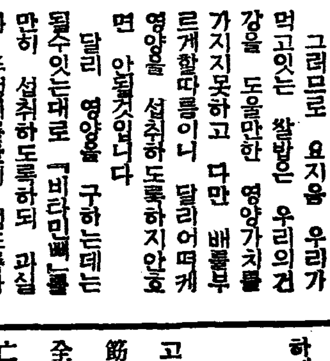
好評과共히

海外輸出도만케되고 더욱그需要가만허가고一面그現象은 藥價가大衆的으로低廉한것도그하나일것이다 가튼驅梅藥일지라도 效果가局限되여잇는것도잇지만 本劑는徒히腫氣는것도잇지만 本劑는 梅毒은勿論 淋毒 濟毒 橫痃 瘡疾의皮膚病 여드름 부름 脊髓癆 神經痛 루마치쓰遺傳梅毒 腦梅毒 고무腫 動脈硬化症便秘等 모다梅毒性疾患에有效하야十數年來 數多한體驗者가虛僞업는效果를賞讚하고 豫期以上의結果로歡喜하고잇다

빰과무릅에생긴 梅毒性腫氣를ベルツ丸으로

新潟縣新潟市 藤岡末子

貴社의隆盛을 心配하야 마지안습니다 一時는元來皮膚病性으로 遺傳性梅毒이 아닌가 하고근심하야 貴社의ベルツ丸을 服用한것이 참으로幸福스러웟습니다. 나는 昨年가을結婚한 廿歲의女子이지만 여름부터가을까지 등과무릅에 부름이곡麻疹처럼 생기는것을 放任해두니까 나어지만 今春에무릅과뺨에생긴 腫氣는 아무레도잘낫지안코 一時는 좌藥等도 써보앗지만 無效이고해서 半信半疑로貴藥을 服用하엿더니 그德擇으로 今年은腫氣가나지안허서 安心하엿습니다. 一時는오히려 더욱만허저서 근심이엇스나 其後結果는 조화저서 참으로ベルツ丸의 效果에는 感心하엿습니다 (下略)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梅毒, 淋毒, 濟毒, 橫痃, 濕毒, 冷毒, 脊髓癆, 腦梅毒, 遺傳梅毒, 루마티스, 頸腺이皮膚病梅毒性부름, 여드름, 動脈硬化症, 梅毒性便秘等諸病 및梅毒性疾患에良效잇음.

定價 六日分一圓, 十二日分二圓, 廿日分三圓, 卅五日分五圓, 七十五日分十圓, 百六十日分二十圓, 二百六十日分(徑用)卅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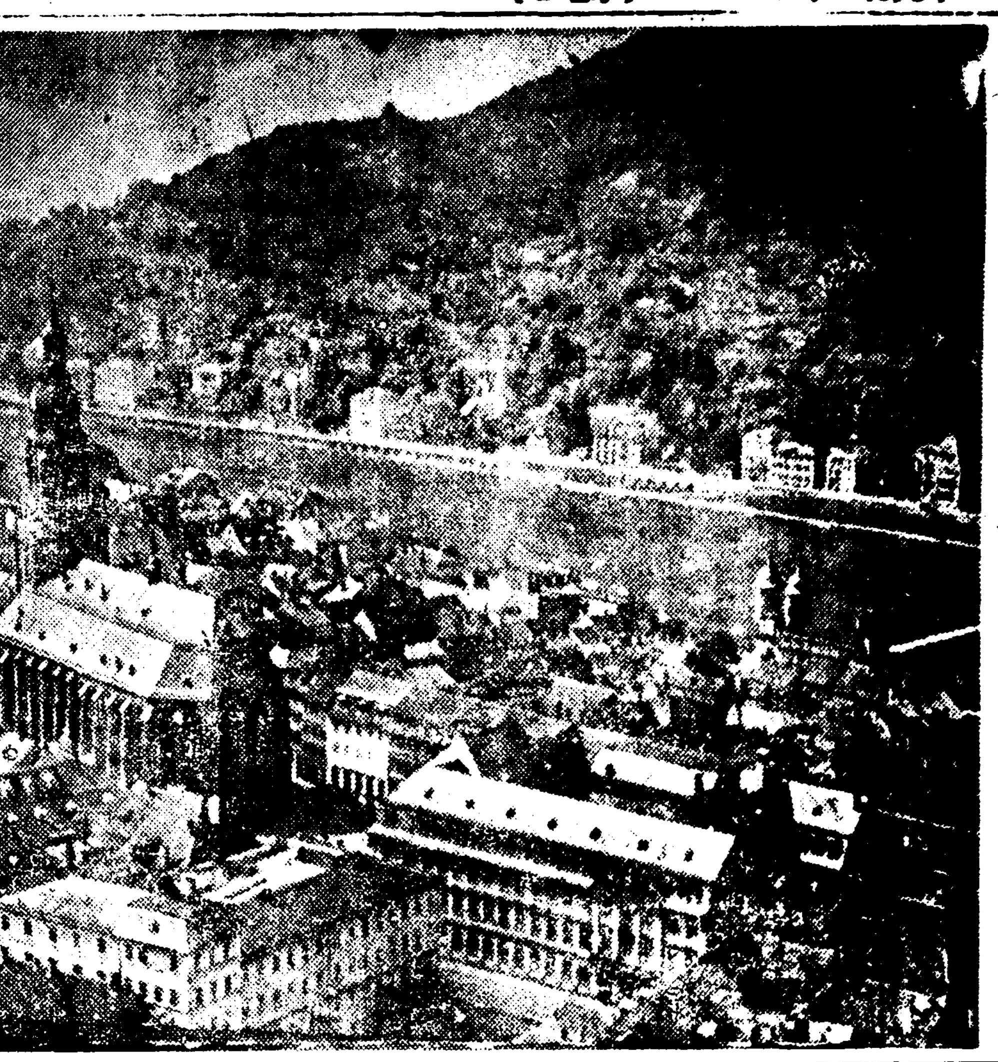
送料四十二錢, 代引十錢五錢

東京市日本橋區通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新之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本局八〇番九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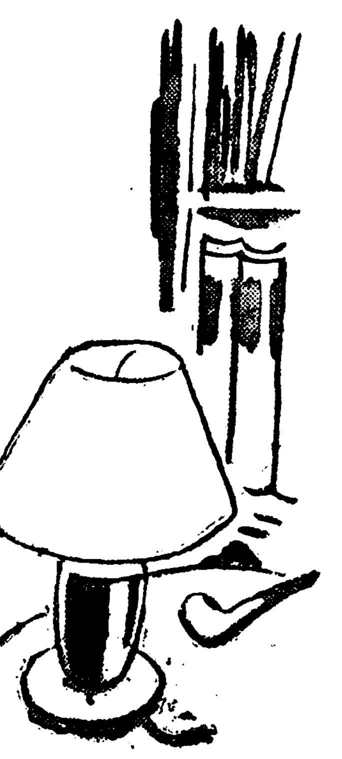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野、藤田



「하이델베르히」의 大學都市

獨逸의 最古한 「하이델베르히」大學은 最近에 創立第五百五十周年祭를 盛大히 擧行햇는데 이곳의大學都市는 네카ー河에 臨하야 背景에 아름다운 숲과丘陵이잇서 여간로ー맨틱한 것이 아니다 記念祭에는 同大學에 關係깁흔 學者들이 全世界에서 모혀드러 大盛況을 이루엇다 (寫眞은 同大學)

學藝



最近의 批評的傾向 (七)

—批判과 中傷—

白鐵

내가 創作方法問題를 反對하는 것은 一般으로 創作方法問題 그것이 가지는 온갓 意義를 否認하는것보다는 지금까지의 그 소위 創作方法問題인 限에서그것은 創作에 對하야 槪念化固定化된 公式과가티 臨하엿다는 것 그런 境遇에는 公式그自體가 一般的으로 一定한 眞實을 同伴하고 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具體的創作過程에 그대로 適合될수 업다는것 말하면 一般은 往往히 具體的 事實과는 矛盾되다는것 또는 一般的으로 正當한

理 論이 具體的으로 害될 때까지잇다는 理由下에서 라는것을 例의 論中에서 累累히 指摘하얏거니와 그 說明이 오히려 不足하다면 여기서 便宜上 一二의 具體的例를 들어서 그것을 說明할수도잇다

첫재로 例를 들면 「랭보」이 綺麗的眞實과

詩 的眞實을 比照하면서그의區別과 特殊性을 指摘하는 例論中에서 한말 「빌스」라는 女性은 一般的으로는 愛와 優美의 神이다! 따라서彫刻家의 눈에는 愛그것을表現의 描象된 觀念에 膠着되어가는 온갓 眞實한 內容의美와 온갓優美와 愛情을 展開해야한다!」 하나 詩人은 그女神을 傳說의 象徵과 情慾에 찬女神으로서 머리칼을흐터트리고 銳利를뿜고 검은 옷을 입고 黑雲을하고 「노스」島로 出現의것을 떠나는 것을노래함에 그것이 一般的으로는 그以上한는 矛盾의 畵面이것만 그畵의場面에서는 조곰도 矛盾되지안코 도리혀 切實한 眞實性을 보혀주고잇다는事實이다! 이것은 一般이언재나 具體的事實은 決定하지못한다는 조그마한 例證이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例를 說明한것이 상의

主 張뒤에는 그가「우리들의 感情에 對하야 一般的法則을 設定하는만치 欺瞞的인것은 업다……」의 見解가잇다는것을 忘却해서는 안될것이다 이것으로 不充分하다면 林和와함께 나역시 尊敬을不惜하는 「지이드」의 作品中에서 一場面을 引用해보자!

「요전날밤 소포로니스카는 寢門을 열어노코「보리스」와「부로오니야」를 재우노라고 이야기햇는데 그治療法으로서의 그의만흔 實로 合理的이고 實로 明確한것이어合니다! 그런데 어제된 獨逸敎授는 그와反對의 說을 主唱하고 왓다는것입니다 한데 사실은 그편이 훨신 合理的이고 훨신 根據가 잇는 말이엇습니다 그의 말하는것을 들으면

睡 眠시간에는 온갓消費그리고 生活自體이외의아무것도아닌 그新陳代謝를 될수잇는대로 制限하는것이 가장필요하다! 그럴때에 비로소 睡眠의 回復的動力을 가질수잇다고 하는것입니다……하나 소프로니스카와 그가 敎育하는 두 兒童의 立場에 돌아와서 생각에게 害가 잇슬수잇는까닭입니다 웨그러냐하면 나의 눈이무디지안헛스면 그兒童들은 結核의 위협이 잇는까닭입니다!」

여기서도 一般이 具體的境遇로는 서로 反對되는 두가지特殊한 境遇가 共存될수 잇는것을 잘說明해주고잇다! 이것은 단순히 두가지 境遇뿐이아니라 數多의特殊한 境遇를가지고 잇슴을 함게

指 示할수잇슴 즐안다! 지금까지의 프로文學의 創作方法이라는것은 그一般的公式을 가지고 作品의 모든 具體的眞實과 特殊事情을 無視하고 絶對와가티 臨하려고 한까닭에 그것은 創作을 固定化 抽象化 類型化하는 巨大한害毒을 數多히 끼처왓다! 나는 그意味에서 그 創作方法을 反對하지안흘수 업는것이다 고리키ー가 그의 論中에서 演劇作家의 缺陷을 指摘하는데서 『미리부터 생각해노흔 企劃의枠內에 모든 事實을 機械的으로 熟慮도하지안코 任意대로 『連結시키는것』은 不可하다!고 한말도 以上과 가튼 意味의 創作方法을 훌륭히 批判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完)

漢詩

『蓮』＝押心　桐岡考選

佳作三之四

寶城郡 權寧浩

一柄直莖七竅心
幽香浮動小塘深
生憎歌女頻爭採
偏愛高人獨有吟
葉帶雨聲通枕冷
花牽日影入簾沉
風淸露白良宵月
君子眞容儼若臨

故事拾綴 ⑧

西域의奇風異俗

湖岩

慧超는 五印度를 巡禮한뒤 西時白雪이 떠픽히마라야萬山을지내서新頭故羅ー라는 一小國에이르럿다。이나라도 勿論 佛敎가 盛行하며 風俗도 北印度와 비슷한데 佛敎의 感化로 그런지 이나라사람은 술을 만히마시지 안는다。慧超는 이事實을 그遊記에 저기갈우되

「即彼此國 乃至五天。不多飮酒」라고 하엿거니와 特히 그가五印度를 巡禮할때 印度人의 飮酒하는 그美風에 對해서 얼마나 기피感服하엿든지 다음과가튼 그의記事를 보면 짐작할것이다。

遍歷五天。不見有醉人相打之者 縱有飮者。得氣得力而已。不見有歌舞作劇飮宴之者。

鄙人이 서로爭鬪하는것을 보지못햇고 設令술을 마서도 겨우 이氣力을 도둡을이지 決코歌舞宴樂을 하며 떠드는것을 보지못햇노라

「不得飮酒。飮性之狂藥」이란 戒律을지키는 佛敎國人의 節飮的美風은 그럴듯도 하지마는 이것을 다시韓國人인 中國人의 節飮그것과對照할때 東洋二大文化國人의 共通特色을 보겟다。

慧超가 一日은 山中어느寺院에서 唐僧하나이 佛經을 求得해갓고 故國으로 도라가다가客死한것을 듯고 그悲慘한 末路에 同情을 表하야 스스로 五言一詩를 지여 그를 吊喪하엿는바 그末句에가서는

誰知鄕國路。空見白雲歸。

라고 장자를 끈는듯한 哀音을吐하엿다。

慧超는 다시 北行하야 迦多의小國을 거처秘密의 나라지벳트까지는 드러가지안코 다만그의 奇怪한習俗을 저것는데 그中에는 이(虱)를 씨버먹는 것가튼 醜風이 잇는것을 말하엿고 慧超는 또 進行하야 希臘塗斯의 殖民地로 이름노픈 넷날 大月氏의 國都이든 建馱羅에 이르럿다。이때 建馱羅에는 佛敎가 行하나 土耳其族인만큼 文化의系統이 달랏든模樣이나 市街에 屠獸場이만코 道路가 險惡하야 盜賊이 橫行하엿다고 한다。

慧超는 建馱羅로부터 西行하야 數個國을 지내서 吐火羅國王城에 이르럿는데「아라비아」人의 征服을 當하야 이나라國王은 逃亡하고 아라비아軍隊가 駐屯하고잇는것을 저것고 아로부터다시 西行한지 一個月만에 波斯境에 이르니 波斯도 이때「아랍비아」의 領地가되엇고「아라비아」人의商業은 西로 西海와 南으로 印度및 後印度와도는 中國廣東까지 와서 綾絹絲綿의類를 貿易한다고하엿스며 더욱滋味잇는것은 東羅馬帝國의 事情이 저것잇다。그는羅馬를訛轉하야 拂臨國이라 稱하엿고 그國情을 말하엿스되『此王兵馬强多。不屬餘國。大食數回討擊不得。突厥侵亦不得。土地足寶物。甚足駝騾羊馬疊布等物』이라하엿고 또그『衣著與波斯大食相似。言音相別不同。』이라 하엿다。

그런데 慧超는 波斯와 및 그隣邦의 놀랄만한 醜風을 저거갈우되

『此中胡國……極惡風俗 婚姻交雜。納母及姉妹爲妻。波斯國亦納母爲妻。』

라고 하엿다。이것은 慧超以外에 隋書에도 記錄되어잇는바나 波斯가튼 相當한文化族에게 이런禽獸의風이 남아잇든것은 실로 意外의일이다 慧超는 아바게도 吐火羅等諸國의 一妻多夫의奇風을 말하엿스며이것이 오늘날에는 오즉 西藏에만 남아잇게 되엇스나 그當時는 퍽 만히 流行햇든 모양이다。

어째든지 慧超의 遊記에서 이가튼 奇風異俗을 볼때 리는 이現實世界가 아니고 他世界에 눈이는듯한感想이 생긴다。

移民小話

『루포르타쥬』②

哈爾濱 蘇星

＝報告NO·1＝

그러나 여기에 뜻하지안튼큰 暴風이 이러낫스니 極東、亞細亞의한곳을 中心삼은 滿洲事變이 이러나자 이地帶의 敗殘된 李壯部隊가 日滿軍隊에 쪽기여 이虎林、密山의 國境地域에 몰리여오게 되엿다 舊政權時代의 軍隊自身의 素質이 極히 劣惡한우에 또한 이動亂中의 때이라 이李壯部隊의 約五十餘名의 軍隊의 暴虐은 言語道斷에 이르럿다 이生産物이 豊富치못한 密山、虎林地帶에서 갑작히 五千餘名軍隊의 衣食을 支給保障하여야되고 또軍資金을 貧擠하여야 되겟스니 거기에 딸아 一般民衆에게對한 苛斂誅求는 그極에 達하엿다 더욱히 自己네가 疑心하는 異民族이오 比較的富裕한 部落인 이武林洞의同胞部落을그대로둘理는 萬無하엿다 李壯部隊의 支部隊인 約一千餘名이 虎林縣城에 駐在하자 곳 軍資金用達의 書信이 날려와서現金 五千元과 軍糧米 五百俵를 一週日以內로 納入하라는 命令이엿다

그要求를 反抗할實力과 武力을가지지못한 이部落은 눈물을 먹음고 이要求에 應할수밧게 업섯다 全部落에 잇는 現金을모아 五千元을만들고 軍糧米 三百俵와 阿片五十斤을 代表者가 가지고 虎林縣城까지나가서 그部隊의 責任者를 만나서 部落의事情이 몹시困難한중이나 全餘力을다ー서서 이번要求는 全部들어서 가지고왓스니 다음에는 결코無理한 要求가업게하도록 우리들을 잘保護해달라고 要望하엿다 그部隊의 責任者도깁분듯이 밧아들리며 여러분의 厚意를 感謝한다는뜻으로 마음기피대접하여주엇다

그래서 一個月間은 그外에별다른 要求條件도업시 無事平穩하게 지내엿든것이다 그러나 그후 日本軍隊가 이地方의 李壯部隊를 追擊하여 처들어올적에 一時에 敗殘하여 그組織性과統制力들일흔 李壯部隊는 이富裕한 同胞部落의 掠奪를하기 始作하엿다 放火、殺人、掠奪、强姦等으로 數十年동안을두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쌓어논 이유토피아를 三四日동안에 餘地업시 짓밟어버리고 말앗든것이다

며칠후 日本軍隊가 이地方의 治安을 維持하엿슬때 「노아」洪水가 지난듯한 이아름다운 『유토피아』의 部落의 慘景이야말로 차마 正視하기어려웟다 人口九百餘名의 部落의主要한 靑年과 壯年들은 이殘忍한 李壯部隊의 掠奪에 對抗하여 싸우기爲하여 銃、칼、망이등을들고 싸왓스나 몃百倍나 되는 多數한軍隊인지라 엇지 그힘이 자랏스랴! 水陸數萬里의 異國에서 同胞들의 生命을 保護하라든 아部落의 젊은 防衛隊의 靑壯年들은 거의 戰死하엿고 칼과 총에마저 죽은老人과 婦女들과 어린아해들의 悲慘한 屍體가 이거리、저거리에 가득찻고 더욱히 이部落의旗手인 나어린 少年旗手가 旗幟를 가슴에안은채로 파수塔에서 가슴에 피를샛밝앗게흘리면서 죽어잇고 피와눈물의 結晶의塔인 敎會와 學校는 放火로因하여 모래塔이 쓸어지듯이문허지고 만것이엿다 그러고 젊고 아름다운 女人들은 이無智한 敗殘兵들이 도망할적에 잡아가지고달어난 사람도만햇다 매맞가티 어머니 아버지를 찻는 어린아해들의 울며불이짓는 우름소래! 젊은아들과 딸을찻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비창한 우름소래! 女人에게 生命보담 더貴重한것을 빼앗기고 自殺한 젊은 處女! 아름다운산속의 同胞部落의 『유토피아』의 樂園은 하로아침에 埋沒된 都市 『쏨페이』의 廢墟가티되여버렷다

白頭山探險의 科學的收穫

白頭山의 地形的考察

＝徒步探險의 經路에 만 限하야＝

④ 姜在鎬

西北으로는 頂上에만 草衣를 티리쓴것가튼 大臙脂峰 (二三五九米) 小臙脂峰(二一二三)을 指點하는동안 희귀한돌을 집어생겻다 내밸엇다하는 山頂을缺한 노픈 山을 처다볼수잇다。이는 勿論 白頭山頂이다。이곳서는 山形全體를 大槪할수잇다。민밋한 세峰으로 되여잇는데 南쪽것이 第一나자보이고 中央이 다음가고 北方에 보이는것 가논것이든갓다。

이곳서 보아도 山貌는 前述한바와가티 大山原形은 圓錐形이더것이 陷落後 數回의爆發로 周壁이飛散破裂하야 今日의形態를 일룬것이 안닌가하는 點이 더욱顯著해진다 深間에는 殘雪이 點在하야보이나 其他희미그룹한 빗으로보이는것은 輕石의白色인것이 分明하다 白頭山의 일홈도 여긔서 나온것이다 우리가선 이無頭峰은 動植物分布上으로도 커다란 境界線이된다하지만 理上特히 地形上으로는 顯著히 界劃이달나서 千里天坪의單調를 깨트린다、첫재材相으로도 森林限界線이 分明해지면서 高山灌木帶를 區別할수업게 곳輕石만이 깔인砂原地帶를 形成한것이라던지 如前히山勢는 밋밋하나 綿綿한輕石高原으로 高低屈曲이 複雜해지는것이다 白頭火山外輪山과 大臙脂峰사이의 鞍背兩便에는 乾川이나마 河床의흔적가흔 地點가 東西로 갈라진것을 보와 저것이 國境問題의中心地點인 所謂 西豆鴨綠 東豆土門의分水嶺인것이分明하다 이제다시項을난우와 定界碑附近의 地形을 略述하기로하자。

三、西豆鴨綠東豆土門이分水嶺

無頭峰에서五里를조곰다나와 森林은 限界를 끗흔듯시 업서지고 일홈모르는 高山草本의 群落이展開된다 一般다른 高山에는 森林木帶를지나 灌木帶의限界를 生育할수잇는데 無頭峰附近 金剛崎의灌木群落을除外하면 森林帶에比하야 넘우나 灌木帶의자름을보겟다 이는 輕石의關係로 因한 地形의 變動의所致가 안닌가한다。얼마안이가서는 草本의群落도 보기드물고 浮石原의 高山礫原砂漠地帶를 形成한다 이地帶는 恒常 西北風이 强烈하기 때문에 浮石은 다東南方向으로 波狀의 砂丘를 形成햇다 草本은 波面의 反對側에 겨우 그리可憐한 生命을 依支하고 잇슬뿐이다。路邊에는 黑燒된 多紅黑의玄武熔岩이 군데군데 그露頭를 보인다 길은 二二六一米의 標高를가진 無名峰과 大臙脂峰사이의 鞍部를지나 얼마안이나려가 조꼼만한 地峽의乾溝가잇다 그언덕에는 돌무덕이가 數十步의 間隔으로 벌여나려가슴을 볼수잇다。처음에 한돌무덕이를 볼적에는 火山岩의 集塊岩이겟지생각하엿스나 그殘存相和와 차림모양을 綜合하야 系統的으로 觀察하면 이石堆(적은石山)는分明히 人爲的構築物인것을 料得할수잇다 이石堆中에는 正部에는 若干의石間을보이나 大部分이 黃石과 蘚苔植物에 덥히여 附近地表와는 區別하기 여러운것을 보와 적어도 몃百年前에 차흔것가티 보인다。이石堆를따라 前述한 外輪山과 大臙脂峰사이 巨라잇슴직한 地點에서 國境의定界碑를 차즈려 이리로번 저리로번하는동안 길한편에서 路程指標가튼 조곰한 標木한개를 發見하엿다 갓가히가보니「白頭山登山路」라고 墨書한 約五寸角의 木製標다 아즉도 碑臺이던 自然石이나마 잇슴을 보아 이地點이 分明定界碑의 所在位置이다。이제 舊問 地形上으로 이問題를 考證하려한다。이國境問題의 論爭의 要點은 淸側에서는 定界碑에적은 土門을 豆滿의 別稱이라하는데잇고 朝鮮側에서는 土門江、豆滿江은本來가別物이라고 主張하는데 잇다。定界碑가선 分水嶺에서 처음보는 西側에는 白頭山에와서 發源形으로 보는 數十米의 地峽가 鴨綠의乾溝로 되여잇다 이것이西豆鴨綠의鴨綠江源인에對하야 東側으로 地峽는多少狹少하나 東豆土門의 土門江의 江源인것은 틀림업다、假設 土門을 豆滿의別源이라하더라도 豆滿江은 그水源을 石乙水라한다면 七十里以上을 도우리가 거처오는 途中 陽水로 낫타낫다가 伏流로숨어잇다하는蔭流가잇섯스니 이것을 系統지여보면 神武城 無頭峰 露齊地를 흘너가는그것이 斷續的이나마 豆滿江源으로 볼수잇다하더라도 無頭峰에서 十分行程을 못와서 砂谷조차 사라저버리고 다시三百米의 高度를 올나 角峰과大臙脂峰사이의 鞍背의分水嶺을 글어선 이地點에서 豆滿江을 白頭山天池에서 發한다는 錯誤와맛찬가질것이다。그러나土門의上流가 豆滿의上流에 合流할수잇는 地勢이면 勿論 土門即豆滿이라하겟스나 이도 地形上으로 容認할수업는 實在的事實이다。

漢詩募集

題…白頭山
押…峯
限 九月末日
(薄謝進呈)

讀者社交室

◇大邱新町李求婚女에게 問婚합니다 저는年齡二十九歲 體重十五貫七百匁、身長五尺五寸二分 無病、慶北安東出生、獨身、兩親別世、學校는 東京에經濟學을 畢業、趣味는讀書와乘馬、旣婚한 妻와 昨年五月에 協議離婚 당신主見에 理合하시면 直接通信을 心望하오며 당신의 主張과 趣味를 좀알려주시요!急要

京城府都染町一〇七ノ三 柳始萬方 柳且

◆普通文官試驗을 準備하시는 讀者諸氏에게 左記書籍을 廉價로 讓渡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社交室을通하여 問議하여주시요 以下書籍은 昭和六年中發行으로新本과同樣
普文學會編纂講義 法學通論、憲法、行政法上下、民法(總論、各論、物權、債權、親族相續의五冊)、刑法(各論總論)
竹內長正 古川鷹九郎 普文受驗提要
星野武雄 普文試驗問題答案集
荻原彥三 朝鮮行政法 以上
全南長興 S生

◆京城一女性에게答함 九月十五日附당신의求婚에應코저하오니 左記住所로卽接送信하시오
京城府興德町四五ノ三 有隣商會

◆京城求婚女에게 九月十五日 朝鮮日報讀者社交室을 通하야 求婚하시는분께 住所를 社交室을通하야 알려드리오니 直接으로通信하야주심을바랍니다
忠南錦繡鑛山事務所 共榮社內 李起燮

◆求婚十四日夕刊社交欄에發表한 京城一女性에게告합니다 저는至今再婚코저합니다 今年三十一歲된 男子이온대 京城帝國大學을 卒業하고 某銀行에在勤이온대 有意하신분이게시면 直接交際하겟사오니 住所를社交欄에發表하심을 切望합니다
淸凉里 李夏鎬

◆大邱求婚女士에게答함 三十歲된男子이온대 家庭形便上急하오니 速히通知하심을 바랍니다 此住所로!!
全北井邑郡七寶面詩山里 金駿基

◆求婚本人은二十九歲男子이온대 現在某病院助手로三年間勤務中이온대 相對者는 年齡十八歲以下로十六、五歲까지、小學程度或은小學卒業後 職業女性으로잇는이나 잇는女子를擇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요
黃海道載寧邑載寧醫院 崔道源

◆養子로! 事情으로因하여 養家를求함 本人은京城帝國大學豫科二年在學 當年十九歲 社交室을通하여告示함을望
望家生

◆本報十五日附讀者社交室欄에 求婚者 京城一女姓에게 急告함 生은 小學卒業後이곳에서 交化工業社長으로잇는 三十歲된 靑年이온대 求婚中마침 社交室을 보고 有意하오니 仔細한말은 社交室로나 直接住所로나通知하여주시요
咸興本町一 交化工業社長

◆大邱二十三歲求婚女에게 九月十二日附朝鮮日報(第五千五百二號)讀者社交欄에 發表한貴下의 求婚事情과 條件을보앗습니다 本人도 亦是貴下와如한人物을 求하옵니다 本人은 當年三十一歲靑年이오며 學識은 商校二年修業하고 公吏六七年間을 지나고 지금은 此住所에서勤務中이오니 前室子女는업고 財力도업습니다 財力有無를不拘하시면下記住所로 寫眞一枚를 添付하여 直接問議하여주시요 本人은貴下의番地와 氏名을不詳하야直接問議치못합니다(要本實을 仔細히記入하시요)
慶北奉化郡春陽面金井鑛山製鍊係 李容燮

◆滿天下讀者여러분이시여 小生이『올림피-아』型 寫眞機를 大廉價로 讓渡하고자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番地로 急速히通知하야주십시요
京城桂洞大東商業學校 鄭海辰

◆求婚 本人은明治四十年七月七日生인 男子이온대 現在商業을經營中이요 初再婚에 失敗를하엿습니다 相對者는 女商이나高女를卒業한분으로 商業에趣味를 가즈신분을願합 年歲는二十歲로 二十五歲까지 初再婚을不顧하오니 有意하신분은 本紙社交室을通하여住所氏名을알려주시요
全南光州

新刊紹介

◆文藝街 第一號 發行所 京城府齋洞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每月二回發行 一部五錢

◆高麗時報 第五〇號(每月二回) 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ノ三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一二四〇九三番 定價一部五錢

◆漢文自習 聖經讀本 劉如大牧師著 發行所 新義州眞砂町四丁目三 光明社 振替京城一五九八六番 定價二十錢

◆講道例話 劉如大牧師著 發行所 新義州眞砂町四丁目三 光明社 振替京城一五九八六番 定價二十錢

◆說無盡 劉如大牧師著 發行所 新義州眞砂町四丁目三 光明社 振替京城一五九八六番 定價三十錢

連載野談 (三) 布袋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不許轉載上演)

마룰캐든총각 (九)

진평왕께서는 그뜻아닌 소문에 처음에는 크게 놀라시고 다음에는 크게 분하사 장차 선화공주를 실문하야 사실을 밝힌뒤에 과연 떠도는 소문과가티 선화공주가 그런 부정한짓이잇스면 나라의 법대로 죽이어 다시금 전국녀자에게 향하야 『신라국의 녀자로서 음행(淫行)을 범한 녀자는 그죄의갑스로 이러케 임검의 딸도죽인다!』 하는것을 선화공주를 죽인 시체로써 증거를 삼어 녀자의풍긔를 깨긋히 닥고 나라의 풍범을 엄중히 밝힐것과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업는것을 일부러 맨들어 낸것이 분명할진대 그런말을 맨들어 낸자를 긔어코 잡어서 『신라국의 백성으로써 거짓말을 지어내어 사람의 명망과 나라의 풍긔를 더럽히자는그 죄갑스로 이러케 죽인다!』 하는것을 그거짓말쟁이의 시체로 역시 증험을 삼어 거짓말하는 악성을 아름답게 할것을 크게 결심하섯다。

그래서 조정의 문무대관과 여섯마을 촌장을 한꺼번에 급히불으섯스니 그뜻은 더 물을것이 업시

음행!。
거짓말!。

이두가지중 첫재 음행은 피(血統)를 어지럽게하야 전통을 바르게못하고 가정과 나라의 풍속을 더럽히는것。거짓말은 사람이 가장 소중이 역이는 다섯가지품성(仁、義、禮、智、信)중에 하나인 미듬(信用)의 아름다운 덕성을 깨트리는것은 물론이오 부지럽시 시비를 이르키게되어 혹은 가정、혹은 나라의 화평을 어지럽게하는것이므로

음행!。
거짓말!。

이두가지는 그성질은 비록 다르나 사람의 인망、가정의 화평、나라의 질서를 해하고 더럽히는것은 똑가튼 두큰 죄악으로써 그것을 이번 선화공주의 부정한 사실이잇는 여부를 가리는 자리에서 또한 나라의 큰 사건으로써 처단하려는것이엇다。

그런데、이일에 대하야 조정의 대관이외에 여섯마을 촌장까지 부르신것은 원래 신라의 장정(章程—憲法)에 나라의 큰일은 여섯마을촌장과 함께 의론하야 처단하는 규정이잇는 까닭이엇다。

이어 조정의 문무대관과 여섯마을 촌장들이 황황히 탑하(榻下)에 이르러 머리를 조으고 업드리매

『경들을 급히 부른뜻은 나라에 중대한 일이 생겻슴으로그 일을 처단하기 위하야 부른것。』

『황송하오나 분부를 메압기를 알외오。』

『요사이 려항(閭巷)에 고이한 소문이 업는가?。』

『별노 듯지못한것을 알외오。』

『선화공주에 대한 고이한 소문이 업서?。』

『황송하오나 약간 풍문일이잇는줄로 알외오。』

『그러면 어찌해 경들은 그런 소문을 듯고 집에게 고치안햇슴가?。』

『황송하오나 너머나 밋지못할 풍설로 일고 알외지아니한것을 알외오。』

『그게 풍설이라 치고。풍설은 거짓말。거짓말을 지어내는것도 큰죄。그런 큰 죄인이생기것을 어찌 숨허떠떠들 도리가잇나?。』

『황송하오며。그저 곰과 소와가티 미련하와 미처 생각지못한 죄가 죽어 맛당한을노알외오。』

하고 문무대관、여섯마을 촌장이 일제히 엎어나 머리를 조으고 다시 업드려 대죄하얏다。

『옹。선화공주에 대한 소문이니 집에게 말하기가 거북히 생각되기 쉬울것지。자식의허물을 그아비에게 면대하야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체면으로 경등의 정목은 이에 짐작하는바이니 더 괘렴치 안커니와 그소문이 여간 맹랑치 아니한 큰소문。선화공주가 죄가잇는 여부는 집이친히국문(鞫問)하야 보려니와 경등은 그 서동방이란것이 무어인지。즉 성은 서가요 일흠은 동방이란 사람인지。혹은 서동이란 사람의 방(房)이란 말인지。그분별과 그당자를 잡어 대령해。』

하시고 진평왕께서는 그문무대관과 여섯마을 촌장을 물려내보내신뒤 곳 내전으로 듭시어 왕후와 갓치 정좌하시고 선화공주를 부르섯다。

補血 強壯

各帝國大學病院指定常備藥
食慾增進에
病後恢復에
「活動の源泉」
藤澤友吉商店

라디오

二十二日 (火曜)

◇同六時 하모니카合奏 一、行進曲「高等學校生徒」……스-자曲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라디오、劇研究會 指揮李如水 效果申彦正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金鎭萬

◇同七時三〇分 講演 個性敎育과情緖敎育 音專敎授 金興濟

◇同八時 新民謠歌外 一、新民謠歌 二、배따라기 三、휘사라령 四、몽금포타령 五、처녀가 閔亨植 宋亨泰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福実이』二篇

―配役―

福実…(彼女)……林玉麗
春甫…(福実의愛人)石淵照
張仁伯…(會社員)…李石元
朴泰浩…(實業家)…李流星
點分…(下女)……金蘭紅
其他數人 劇研究會員等

二、國舞曲「뻐국새」……
三、行進曲「僚友」……로바손作曲
四、쪽목하늘……드보르작作曲
五、國舞曲「메리위도-」……레하-ㄹ作曲
六、行進曲「칼-王」……칼-作曲
第一高普하-모니카B밴드 指揮 舘秉太

◇同九時 피아노聯彈 一、입프롬프-序曲、재즈曲…엘드三作曲 二、序曲「詩人과農夫」…슛페作曲 三、交響曲第一番中에서…베-토-벤作曲 金福實 金恩子

第一放送

◇同六時 童話劇 村岡花子
◇同六時二五分(東) 青年의時間
◇同七時三〇分(東) 三絃童謠 町田嘉章一派
◇同九時 警笛 飯塚旭秋

二十三日 (水曜)

◇午後零時五十分 時調와音律 一、時調 가、平時調 나、辭說時調 二、音律 가、平調會相 나、念佛打令 時調와洋琴 李承燁 短簫 崔壽成

◇同一時二十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童謠獨唱 一、팔려가는소 二、귀먹어리엿장수 三、기러기 四、산길 五、초생달 꼬부랑할머니 七、제비남매 八、갈릉병아리 九、갈닙피리 一〇、참새 피아노伴奏 鄭琴湖 金駿泳

◇同六時二五分 課外講座『秋分이야기』梨花女高 鞠球袞

◇同七時三〇分 古談 『盲壽姫』 車青吾

◇同八時五分(東) 管絃樂

◇同八時三五分 놀량外 一、놀량 二、앞산타령 三、뒷산타령 李命山 李命吉 卓福萬 金泰運 金花香 徐山玉 大笭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歌詞 一、乾坤歌 二、漁夫詞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東) 少年音樂講座(九) 弘田龍太郎
◇午後六時(東) 이야기 村上德郞
◇同六時二五分(大) 講演 江原義五
◇同七時三〇分(東) 曉鳳蘭
◇同八時五分(東) 管絃樂
◇同八時三五分(東) 國民歌謠 永田絃次郎
◇同九時五分(東) 新箏曲

二十四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晋川江의伴侶』 白 番

◇同一時二五分 婦人時間 「가을의化粧」 朴貞完

◇同六時 兒童新聞과兒童劇 全朝鮮兒童作家同人會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滿洲高句麗」 李德象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一) 崔南善

◇同八時 小說朗讀 申不出

◇同八時三〇分 短打令外 一、短打令 二、六字배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崔素玉 洪小月

◇同九時 오조外 一、오조 二、回心曲 河龍男 金春男

第一放送 (波長三〇九米)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佛語講座(二) 丸山順太郎
◇同一〇時三〇 家庭講座 白井竹達
◇午後零時五分(臨) 琵琶 脇岡武次
◇同六時 童話 大石蓮平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本多龍成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一〇分(東) 歌謠曲
◇同八時三〇(東) 朗誦 中村武羅雄
◇八時五〇分(東) 라디오、드라마 (放送文藝懸賞當選作)

★曆★

九月廿三日(水) 建丁酉八月小(初八日) 戊申・土・寅・開

●祭祀裁衣納財安葬에宜함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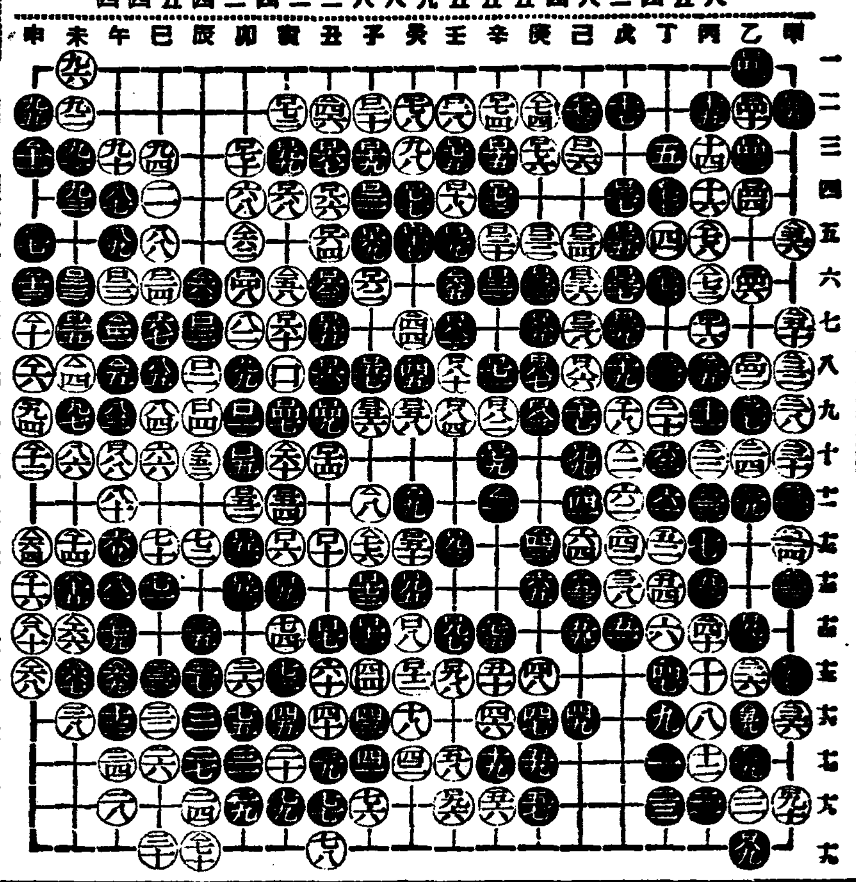
米國映畫의『베스트·텐』

「모-숀·피추어·헤랄드」는 今年度上半期의 興行成績으로본베스트·텐을 다음과가티發表하얏다

●『巨星지-그펠드』메社作品、로바-트·Z·레오날드監督 윌리암·포웰主演
●『艦隊를 쫏처서』RKO作品、마-크·산드리치監督、푸레드·아스테어主演
●『로-스·마리-』메트로社作品 W·S·반다이크監督、자네트·맥도날드主演
●『모-던·타임스』유나이테드社作品 차-리·차프린監督主演
●『오페라·햇트』콜럼비아作品 푸랑크·카푸라監督 게리-·쿠-퍼主演
●『海賊푸레드릭』 워-나·내쇼날作品 마이켈·카-티스監督 에로-르·프린主演
●『사랑과光明』 유니버셀作品、죤·M·스타르監督、아이린·던主演
●『쇼-·보트』 유니버셀作品、제임스·웨일監督、아이린·던主演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6—

白 尹周炳　黑先 柳鎭河



蔡極文氏評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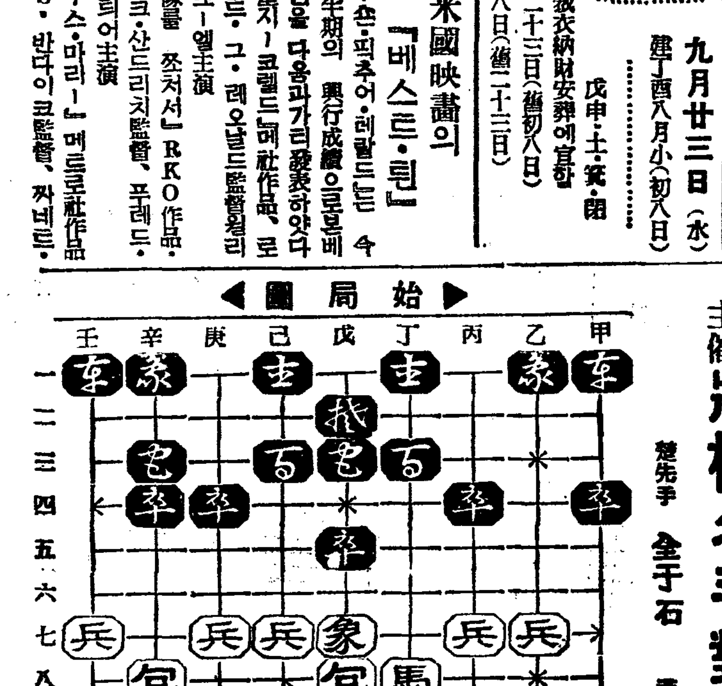
(着手) 辰의大、卯의五、申의十四、申의十二、壬의六、未의十四、未의十五、申의十五、午의十五、辰의十九、丁의大、丙의六、己의二、庚의二、辛의十四、子의十二、丁의四、丙의五、午의十四、申의十四

黑이 末端收拾도 先手를 利用함으로 辰의六 壬의六 丁의六 等을 다 獲得하엿스니 得意之地에는 利不勝之라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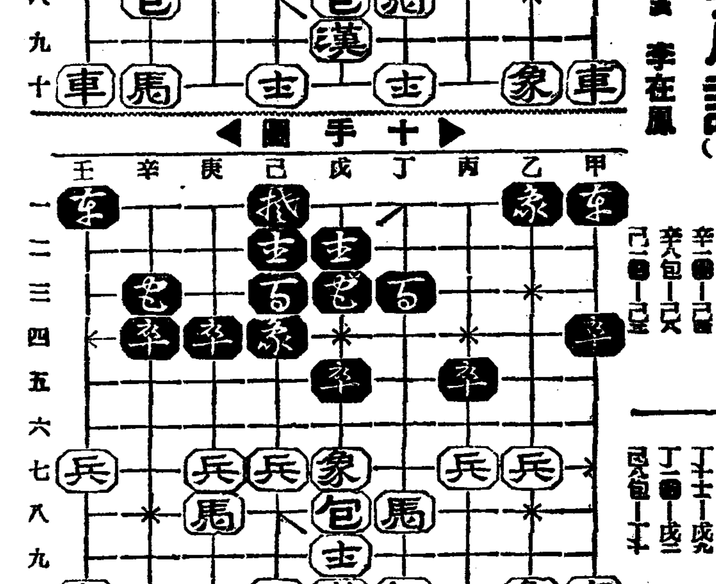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五)

楚先手 金于石　漢 李在鳳

始局圖



十手圖



丙四包—丙五　辛十馬—庚八　辛一包—己一　辛八包—己八　己一包—己五
戊五漢—戊四　戊二包—己二　丁十士—戊九　丁一包—戊二　己八包—丁十

唱劇史上의新機軸

歌劇『春香傳』大公演

보라 適材 適役의 名唱들!

指揮 李東白
演出 宋萬甲 丁貞烈
脚色 金容承

□配役□

新官使道 金昌龍	房子 吳太石	使令 金世俊	
李道令 丁南希	香丹 金任壽	使令 曺南承	
春香 朴綠珠	雲峰 李東白	驛卒 趙相鮮	
春香母 林小香	任實 丁貞烈	驛卒 柳大福	
	谷城 宋萬甲	通引 都點伊	
	獄使丁 沈相健	執杖使令 姜太弘	
	級唱 徐鴻九	行首妓 曺鶤鵷	
	執事 丁元燮	妓生 李桂仙	
	首刑吏 韓成俊	成壽香 李玉花	

時日 九月廿四日부터五日間 ● 場所 東洋劇場

主催 朝鮮聲樂研究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武田賣藥品

月經 不順과寡少

女性의美와健康을 지여내는卵胞호르몬

オバホルモン

국제표준품 國際標準品으로一位를占한結晶性製劑

オバホルモン은女性特有의機能을發現식히는重要한卵胞호르몬으로서、卵巢機能을活潑케하는活力減衰된諸臟器의機能을賦活케하며、新陳代謝를돕히며、女性의健康을保護增進식힌다。

女性神經衰弱、憂鬱症、月經痛、初老期、『月經閉止年齡』의頭痛·心悸亢進·四肢冷感·視力減退

乳汁의分泌不足에도賞用된다。

錠劑(百單位) 二五錠(一圓五〇) 一〇〇錠(三圓七〇)
(五百單位) 二〇錠(二圓六五) 五〇錠(五圓七五)
粉末(一瓦=千單位) 一〇瓦(一圓六〇) 二五瓦(三圓六〇)
注射液 百、五百、千、一萬、五萬單位あり。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製造元 株式會社 帝國臟器製藥研究所 東京市外大崎町

36—880(O)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手紙上手は成功の鍵!!!

ヨダ 實用新案 手紙大辭典

大評判の手紙の本

◆本書は十年間苦心研究の結果完成せし他でまねの出來ない獨特の考案で手紙文の特長を◆實用◆交際◆日用文◆商用文◆ハガキ文◆其他口語文に至るまで趣味の手紙に解り易く如何に手紙下手の方でも即座に書ける

もう頭を痛めずスラスラと思ひ通りに手紙が面白く書ける

●四六判ガナ附美本

「大特價一圓」に割引す

十五錢代金引替はハガキで註文

次第向送料共一圓卅八錢

る全急註文あれ不向返金

今回十版記念の爲手紙辭典を註文者に限り上記景品五冊を手紙辭典に同封無代進呈

大景品進呈

發賣元 現代出版社 大阪市東淀川區木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근래의 신부는 모다요리선수 입니다 아지노모도를치고 요리를맛나게 잘하십니다

味の素

(登錄商標)

『四季朝鮮料理法』 定價五錢 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9—へ

妊娠.産褥.授乳時와 VITAMIN"B"

SANKYO

비타민缺乏은諸障害의因

비타민B의體內缺乏은 脚氣뿐만아니라 其他種種의疾患을誘發하고 我國民을 비롯하야 쌀을主食으로하는사람에게는 特히 警戒를要하는바이다。

다른境遇는 말할것업시 妊娠、産褥授乳時를 特히 檢討함에 비타민B缺乏에依한 諸障害말하자면 妊娠脚氣、産褥脚氣等極히만타 近代醫學의闡明하는바에依하면 上記境遇에잇서서 體內의비타민B消費量은 常時의三倍乃至五倍이므로 食品必須의榮養素不足缺乏으로 이르키는所以가 分明하여젓다。

비타민B缺乏에依한 障害實例

醫學文獻에依한 비타민B缺乏에因하는 障碍乃至症狀의 主된것을드러보면 (가) 食慾不進(나)嘔吐噁氣 (다) 頭痛、頭重 (라) 最低血壓의下降 (마) 脈搏數의增加及不安定性 (바) 運動障碍 (사) 筋肉痛 (아) 便秘 (자) 浮腫 (차) 神經系의 障害等等이다。此等障害乃至症候는 脚氣病의一症候인것도잇스나 때로는 全部脚氣를 證明할수업는 境遇도잇다。特히 各種의消耗疾患、妊娠、産褥授乳時에잇서서는前述한바와가티 비타민B의 消費量은 三倍乃至五倍로 增大하고 따라서 그缺乏을告하는結果를 이르키는까닭이다。이러한境遇 特히 비타민B攝取에 不斷의留意를 要해야할것은 明白하다。

비타민B의攝取

비타민B는 各種食物에잇스므로 大槪는 食事에依하야 其攝取도可能하다 그러나 食物의選擇을 잘못하면 卽비타민B를 含有한食物을 適當히 攝取하지안코 或은 種種의原因에依하야 食慾不進하고 그때문에 所要의비타민B量이 體內에업는 結果가 나타난다 或은 體內비타민B消費量의 異常增大에依하야 그結果缺乏을 招致하는수가잇다。비타민B가一邊缺乏하면 食物로는 容易히 補充할수가업다。이러한境遇에 所謂비타민B를 多量으로 包含한藥劑의힘을 빌必要가 생긴다。

비타민B의歷史

現今의 비타민說이 學界에發表된것은 明治四十三年十二月(1910年)吾鈴木梅太郎博士의 오리자닌이 最初이다。外國에잇서서는 英의 풍크氏의發表를 嚆矢로한다 이것은 鈴木博士를뒤니여 約一年 1911年12月의일이다。卽 吾鈴木博士는 現今의비타민說을 硏究發表하야 오리자닌은 비타민B의 世界的始初로서 [illegible]되여잇다。

오리자닌은

이러한歷史를 가진오리자닌은 醫藥으로서 發賣以來 임이 約三十年을 經過하야 其間多數의臨床實驗과 製法의 改良에相副하야 그藥效品質에關하여서는 定評이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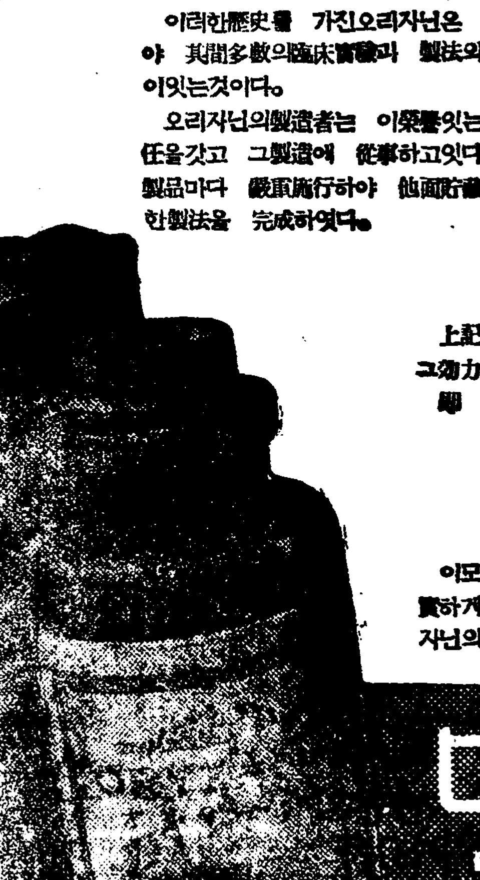
오리자닌의製造者는 이榮譽잇는 歷史를保持하고 다시 光輝잇게하기爲하야 責任을갓고 그製造에 從事하고잇다。一定效力을 保證하기爲하야는 生物學的試驗을 製品마다 嚴重施行하야 他面貯藏에依한 品質效力의變化를 防止하기爲하야 特殊한製法을 完成하엿다。

妊娠·産褥·授乳時와오리자닌

上記의歷史와 製造者의責任觀念의 綜合은表示하는 境遇에잇서서 그效力에對하여서도 多數의實驗報告로 明白히 斷言할수잇다。

卽 (가) 거이 妊娠嘔吐업시(입덧) 苦痛을 맛지안는다。
(나) 食慾을增進하고 便秘를 佳良케한다。
(다) 脚氣의倂發을 防止한다。
(라) 胎兒의發育도조코 生後에도 살이잘찐다。
(마) 母乳의 分泌가 자못조타。

이모-든 實驗에依하야 明白하게되고 製造者의責任에依하야 確實하게 되는것이다。이것은 卽小社가 妊娠、産褥、授乳時에 오리자닌의 應用을 推奬하는 所以이다。



ビタミンBの世界的始祖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粉末、錠劑、液、エキス、注射液各種。(說明書進呈)

東京·室町三 三共株式會社

幽靈은西便으로 — 유나이테드社超特作 르네·클레르監督 로버-트·도낫 主演 毎日 …時半 六時半

◆上映待望 東和商事提供 全世界의天才 르네·클레르의最高傑作 카-리-할드主演 青春의바다

◆北獨逸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畫 伏見直江主演 武器なき人人

十九日 廿日 兩日間 카나리아 青春의日 特別夜間演奏 (次週封切)

團成社

九月廿二日부터 映畫創始以來初有의名品 MGM超大作 日本版 南海의페-리-칸

MGM超特作日本版 古城의妙鬼

大都映畫超特作時代劇 白井戰太郎氏監督作品 海江田讓二主演 渡り鳥長脇差勝負

優美館 貫鐵町 電光三九五

九月二十二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 土曜、日曜、祭日 …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豪華版 잘잇거라 海軍兵學校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畫 내가숨은되다

◆POL超特作 오-르-토-키-版 現代劇 女軍突擊隊 監督:木村莊十二氏 主演:堤眞佐子孃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一三三番

十九日から五日間 毎夜二回入替なし

▲幽靈西へ行く 主演 ロバート・ドーナット

▲續エノケンの千萬長者 主演 榎本健一 P·C·L

▲廿世紀 ウイル・ロヂヤース主演 懷しのケンタッキー

若草映画劇場 電話本局二五四三番

十八日より第二回提供(四日間) 最低料金大衆席十錢均一 大都映畫超弩級時代劇 原作 石山稔 源八一番手柄

大都映畫現代劇部超弩級作 阿部九州男·木下雙葉主演 幽靈一座 原作 中山香海

無敵亂闘王 第二篇

米國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グレゴリー・ラ・カバ監督 社長は奥様が御好き クローデット・コルベール主演

永樂町 電話三二三番 中央館

九月廿二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毎日三回晝夜公演 大豪華篇鑑賞週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映 夜間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佛蘭西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不朽의傑作篇 椿姫

松竹키네마社超特作 齋藤寅次郎氏監督 幽靈が死んだら

유니버살社作品 舞踊의大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三番

慶北의水利復舊費 二百萬圓의巨額

其中國補는겨우八十萬圓? 남어지負擔이問題

【大邱】지난번의 대수해로 말미아마 경상북도내의 수리공작물(水利工作物)인 제언(堤堰)및보(洑)등이 전부류실되여 복구비(復舊費)만 대략 이백사십삼만사백륙십원에 달한다는바 이에 복구대책으로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팔십오만구백삼십칠원을 요청하야 이금액한도범위로 복구를착수하고 남은 일백륙십여만원의 막흔비용을 요하는 복구공사는 지방민의 자력(自力)에 일임하야 복구할 방침이라한다

경북일대는 지리(地理)나 토질(土質)상 관개로 천수답(天水畓)만키로 전조선에 제일위인바 수답총면적 십구만 오천일백오십팔정보중 에서 수리안전답(水利安全畓)이 겨우 구만이천구백십사정보 이고 수리불안전답(水利不安田畓)이 십만이천이백사십정보에 달하는바 한발(旱魃)대책인 수리공작(水利工作)이 정지상태에 빠저잇서 매년 농작물의 실감수가 십삼만륙천여석에 달하야 금액으로환산한다면 매년 농민의 손해가 일백삼십륙만팔천여원의 거액에 달한다고한다

이와가리 수리사업 불완전을 변녀히 일반농민의 손해가 막대함에 설상가상으로 종래에과설된 수리공작물이 전부류실되여 피해정도로 보아서 지방민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복구될 여망이 잇지아니하야 속수무책이라한다

그럼으로 천수답(天水畓)을 몰론이고 수리안전답(水利安全畓)까지 메경(廢耕)의 위긔에 빠저잇슴으로 한해해제(旱害解除)대응책이 시급을 요한다

◇慶北各郡堤堰洑及堤防護岸復舊費概算表

達城	一〇〇、六〇四圓	慶山	七、〇八〇圓
軍威	三九、四四三	淸道	三、七五五
義城	七、三七六	高靈	三九、四四三
安東	四〇六、五二七	星州	二八四、七九九
靑松	一三六、四〇六	漆谷	一三八、三三六
英陽	四六、五四〇	金泉	三五九、一〇六
盈德	一四四、三二四	善山	一四〇、三五五
尙州	三一三、七五六	聞慶	三一、三九一
醴泉	一七八、八五九	榮州	八七、三九五
奉化	五五、七六五		

偉大! 同情의熱!

現金四百四十圓 衣類二千六百點

安東縣支局主催의水害救濟蒐集品 第一回로本社에發送

【安東縣】 긔보=지난삼일까지연오일동안 평양랑락극단(浪樂劇團)을 초청하야 남조선수해구제자선연극이 끗난뒤 본보지국장 강재환(姜齊煥)이하 지국원일동과 로동조합후원으로 구루마를끌고 의복모집한것이 이천륙백이점과 제반비용을제하고 금품사백사십원사십삼전을 지난십칠일에 본사로발송한바 아직도지국으로 도라의봉을 가저오는중임으로 안동현동포의 열렬한 동포애의열정은 빙산(氷山)이라도 녹일만한 표현이라할수잇다한다

◇寫眞…(上)救濟演奏會場 (下)蒐集된救濟品(安東縣)

會寧布教所에서 衣類三百八點

【會寧】 희녕읍불교외에잇는 금강산건봉사(金剛山乾鳳寺)회녕포교소 주무정주호(鄭周好)씨는금번 삼남수해리재동포의 참상을 가긍하게생각하고 지난십삼일부터 동십오일까지 삼일동안 불교신자의 가정을일일히 방문하면서 수재민구제품 으로 의류삼백팔점을 모집하야 지난십오일오후에 본보회녕지국을 차저와서 이것이 만치못하지만 일긔가 차오는이때에 속히 수해지에 부처달라고 의탁하엿다고한다

純情어린結晶品 二千二百餘點

襄陽과江陵에各一千點式 送料는米奉運送店서

【元山】 불의의수화로 백만리재민이 지금도탄(塗炭)에들어 밥과옷과집을일코 로두에방황하고잇슴을들은 조선방방곡곡에서는 동족애에불타는 의연금품을 매일과가티 내고잇거니와 이생사의기로에선 백만동포에게 한벌의옷이라도 보내여 동족으로서의의무를 다하겟다는 원산시민은 남녀로소할것업시 용분의의연을하야 본사원산지국을통하야 재지로 보내달라고 의탁하여왓는데 본사원산지국에서는 제일회로 지난십구일 강릉(江陵)에 일천오십사점 양양(襄陽)에 일천이백사십점을 각각발송하얏다 그런데 이구제품의 송료는 십여원에달하는것을 원산본정오정목(元山本町五丁目)에서 미봉운송점(米奉運送店)을 경영하는청년실업가인 김성종(金聖鍾)씨가 구제품이라는 말을듯자 자진하야 송료를 밧지안코 일체비용을내여 재지동포에게 발송하얏는데 지국원의 감사는물론 일반의칭송도 자못 놉다고한다

水害同胞同情 運動會를中止

【水原】수원상일녀자보통학교삼일남학교종로유치원삼교는매년추긔련합회가잇는 이련합회에서는 오는추긔운동대회를폐지하고 그경비오십원을 남선수해이재동포에게 수해구제금으로 연출하기로 되엿다한다

洪原支局에서 救濟金袋配付

【洪原】본보홍원지국에서는 금번 남、중부조선수재 구제금품주머니를 작성하여 일반시민에게 배부하게되엿는데 긔한은구월말일까지인바 금품의 다소를불구하고 재난으로 신음하는재지동포를 하루밧비 구원하자는의미심장한 장거로 일반주민은 동활동에대하야 비상한갈동을가지고잇다한다

幼年主校生赤誠

【興南】흥남읍서내호예수교회내유년주일학교아동들은남조선수재이민들을 위하야 그들의따뜻한 순정으로 모은돈 현금이원칠전을금이십일일 본보흥남지국에차저와서 송금을의뢰하여왓다한다

는 동호회편여차장을 목표로 경비에게여 일천사백여원중 각각 일백륙십원지을 자진납부하엿고 남어지 칠백원은 일반학부형측에서 부담지렴하는일방 도군당계당국에 양해를 엇기위하야 조제원(趙濟元)김창긔(金昌基)양씨를 맥남천대표로 군에보내여명렴히 활동중이라고한다

金浦支局後援의 全金浦庭球戰

【金浦】김포청구구락부주최와김포운수주식회사 본보김포지국후원하에 열리게되는 제륙회전김포정구대회는 오는시월십일일에 김포군청정구코-트에서 열리게되리라는데 만일그날이 불순할경우에는 십팔일로 연긔하리라고한다

安州에도雨雹 農作被害多大

【新安州】안주지방에는 지난십륙일부터 긔압이 나리더니 십칠일 오후사시 삼십삼분부터별안간 우박(雨雹)이 내리기시작하야 약삼십분 가량이나나리엇는데 농작물에 큰해가되여 농민의불안을이르키는중 아프로도 어떠한지 일반농민은 수미를펴지못하고잇다한다

山城鎭同胞美擧

現金百餘圓을醵集하야 兩處水災民에同情

【山城鎭】어번의 대풍수재는력사상희유의 대천재로 백만의동포들이 긔아선상에서 헤매이고잇는 참상이날로 신문지상에나타나자 이역만주로 류리해온동포들도 주머니를털러 재지삼남과 린군청원(淸原)에보내달라고 지난팔일에 산성진 조선민회와 본보산성진지국에 긔탁해온것이 현금칠십사원에 달하든바 또구일에도 본보산성진지국을 경유하여 재지로보내달라고 장세운(張世云)씨의 오원을비롯하여좌긔제씨가 십륙원을긔탁하여왓다

張世云 五、〇〇 朴玉甲 三、〇〇 李奉官 三、〇〇 京城館 一、〇〇 金換植 一、〇〇 永仙樓 一、〇〇 金慶烈 五〇 龍川館 五〇 康昌洙 五〇 朝日商店 五〇

本報山城鎭支局取扱 九月累計 一六、〇〇

內 朝鮮送託金 一〇、二五 淸原送託金 五、七五

累計 朝鮮同情金 四七、二五 淸原同情金 四二、七五

計 九〇、〇〇圓

三郡의燕麥被害 二十一萬圓突破

面積으로九萬餘反步에達해 咸南山間에또大凶

【咸興】련삼년래해지(水害地)인 함남도산지대삼수(三水)풍산(豐山)갑산(甲山)장진(長津)군등지에는 금년에도 역시연맥(燕麥)에관수(冠銹)병 다른전작물(田作物)에는 조량(早凉)조상(早霜)의 피해를바다역시전년에지지안는대흉을 면치못하게 되리라고하는중이며 이삼일일에 함남도에 일반의 우려는 극도에 달하고잇는데 풍산(豐山)삼수(三水)신흥(新興)삼군의 연맥피해보고를보면 다음과가티 팔만구천이십일반(反)구묘의 광면적으로그피해액은 이십일만삼백이십원사십전 삼만팔천팔백칠십팔석의 대감수를 뵈운다 각군별로보면 다음과갓다

	被害反數	被害額
豐山	三六、九三三反	一三六、〇〇三、四〇
三水	五一、五六四、九	六九、三〇七、〇〇
新興	五二一	一、九四〇、〇〇
計	八九、〇二一、九	二一〇、三二〇、四〇

府外中之島上端에 假拏銃强盜出現

一夜間에二處를襲擊하야 現金을强奪코潛跡

【新義州】십구일오후열시 의주군위화면상단동(義州郡威化面上端洞)박응집(朴膺集)방에 가권총을가진 강도한명이 들어와파을협박한후 현금오원을 강탈하고다시 一●사는 김용습(金用楫)방을 습격하야 현금을내이라고 협박을 하엿스나 현금이 업다고 대답한즉 오는 시월이십일후에 다시올터이니 현금이백원을 준비하야 노으라고호언을 남기고어데로 종적을감추엇다는데 방금 신의주서와 의주서와 협력을취하야 엄중수사중이나 이십일일오후까지 범인을 체포하지못하엿다한다

淸城公普生美擧

【義州】의주군광평면청성공보교 륙년생 (淸城公普校六年生)일동이 남조선의수재로백만동포가 곤경에빠저잇다는사실을 본보를 통하여 알리게되자 이에 동교생들은모ㅡ든것을 앗기지안코 하학시간과쉬는날을 리용하야 혹은가두로 혹은강변으로 산산이헤여저 닥치는대로 한푼두푼모흔삭전일금십원을 모아가지고 본보청성주재긔자 김경하(金景河)군을 차저미성(微誠)이나마 이돈십원을 남조선수재민에게보내여 적당히 처분하여 달라고 긔탁함으로 이에본긔자는 즉시본보의주지국을통하야본사로보내엿다

平壤

關西體育會 綜合體育大會

▲時日 九月二十六日午前九時부터

▲場所 箕林里公設運動場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樂安公普校 學年延長運動

【筏橋】근래에 전조선각지에서 부르짓는 입학난문제가 분분한 이때에 성적관계로 륙년제가사년제로 다시변경되여 약사백여명 수용할학교에서 겨우이백여명밧게 못수용함을 유감으로 늣긴 전남순천군락안면 공보교 (順天郡樂安面公普校)학무위원김병석(金炳錫)김상옥(金相玉)김병갑(金炳甲)김창표(金昌杓)등제씨

岐陽郵便所에 不正事實發覺?

所長以下全員免職

【鎭池洞】평남선기양역전기양우편소(岐陽驛前岐陽郵便所)에는지난구월일일에돌연 평양체신분장국감독과모리경남(平壤遞信分掌局監督課毛利敬男)씨를 출장시겨 동소의소장이하 사무원 이인과 배달인이인을 면직시긴후 사무를직접 취급한다는데 아마 동우편소에서 공금에관한횡령사실의혐의가 발생한듯하다고 한다 이일에대하야 전긔모리(毛利氏)씨의 말을드르면 소장이하 사무원과배달인을 면직시긴것은 사실인데 그내용은아직도 말할수업다고한다

高天受氏美擧

【筏橋】전남보성군벌교면척령리(寶城郡筏橋面尺嶺里)고천수(高天受)씨는 모교인 벌교공보교(筏橋公普校)를 위하야 최고급중음긔한대를 일백오십원을 주고사서긔부하엿슴으로 씨에대하야 일반은칭송한다고한다

救濟金品逕至 本社元山支局에

【元山】금번풍수해로 인하야처참을 극한 남조선 급 령동지방의 백만리재동포들의 로천긔한에 우는현상에 동정을 마지아니하는 항도재반인사의 구재금품이 매일가티 본지국에 의탁이 답지한다함은 즉시보도하는 바어니와 지난십팔일에도 재지로 보내달라는 따뜻한 동정금품이、아래와가티 들어와다

一金 六圓四十五錢 德源郡縣面現洞里振興會靑年部

衣類 十八點 元山中央幼稚園兒一同

一金 五圓十二錢 衣類 三十四點 元山中央敎會

衣類 六點 元山銘石洞 金梅心女史

宜川記者團主催 水害同情의밤

廿八日宜川에서

【宜川】남조선일대와 관동지방을 엄습하야 칠천에 갓가운인명의 피해와 백만을 넘는리재민을 내인 탁랑의 폭위는 생각만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며 장차 닥처오는 겨울을생각할때에는 그들의 참경에 동정의 한줄기 눈물을 금치못할 형편이니 어찌 가는피줄을 타고난 동족으로서 그냥잇슬수잇스랴! 선천 신문긔자단에서는 당지 신성학교 보성녀학교 선천 극우회(劇友會)의 후원무어며 『남조선수해동정의밤』을오는 이십팔일 오후팔시 당지선서극장에서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개최전 수상을알두고 각가정을 방문하야 그날밤의 성황을 긔어히 엇고저 단원이총동원하야 활동하리라는바 일반은 특별한 후원이 잇기를 바란다고한다

愛欲의彼岸 【108】

李光洙 作 金康穆 畫

・그러면서도 헤련에게는 누군지 모르게 그리워하는 생각이 잇섯다。강선생은 그리워하지아니하는가。오늑도 미운 사람은 아니엇다。주장에게 대해서도 호감을 회복할수가 잇섯다。그러나 그사람들은 다 헤련의 생각을 알아줄것 갓지아니하엿다。안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것이 헤련에게는 그리 조흔 일갓지아니하엿다。헤련의 동무중에도 벌서 안해가 된 이도 잇고 어머니가 된 이도 잇지마는 하나도 행복된 사람이 잇는것 갓지아니하엿다。다들 남편을 원망하고、심하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잇섯다。보기실흔 마음의 갈등과 내외싸움도 잇는 모양이엇다。멀리 볼것업시 그 어머니의 일생이 헤련에게는 씻을수업는 아픈 긔억을 주엇다。그의 안해로의 일생、어머니로의 일생—그것은 지옥의 일생이 아니냥 나라고 그러케 되지말라는 법 잇는가!

헤련은 이러케 생각한다。

동무들의、말을 듯건댄 혼인하기까지에는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의 충성된 신하가 되어서 무엇이나 여자가 원하는대로 다 하기로 맹세를 한다고 한다。그러나 한번 혼인을 해 노호면 남자들은、바로 혼인한 이튼날부터도 그 폭군의 본색을 탈로해서 혼인전의 서약은 모조리 발로비벼버린다고 한다。그리고는 무엇이나 제마음대로 할뿐아니라、안해가 하지말라는것이면 심사로 더 한다고까지한다。첫 애가 나기전에 벌서 다른 여자를 눈겹어보는 일까지 한다고 한다。그래서 보채는 어린애를 안고는 늣도록 안돌아오는 남편을기다리고 울고 안젓는것이 젊은안해의 그림이라고 한다。

『이건 무에야、찔끔찔끔 울기나하고。보기실혀。그리라거든비집으로 가!』

하고 호령을 하게、되다고한다。그리다가 무슨생각이 나면

『노야지말어、내 사랑하는안해』

이러한 소리로 달래고、그리고는 또 끔직이 사랑이나 잇는듯시 구찬호리만큼 충은혹은하게 군다고 한다。그러나 그는 곳 잡이 들어버린다。남편의 참뜻을 알고가십며서 요모조모로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이루는것은 젊은 안해뿐이라고 한다。

『아무렴은 협수잇서? 그렁저럭 살아가는게지』

하고 젊은 안해들은 그가 남자보다도 다분으로타고난 단념을 가지고、일종의 자포지기로 살아간다고 한다。

동무들의 이러한 말들은 헤련의 귀에 다 진리로 들렷다。헤련이가 집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며、오빠 올케의 사는 양을 보고 어든 결론과 일치하기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지식이 헤련으로하여곰 아직 가저보지도못한 가정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생각을 가지게하엿다。

그러나 헤련이가 혼인을 실혀하는데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잇섯다。그것은 헤련의 성격에서 오는것이기때문에 더욱 큰 저가 깁펏다——

헤련은 대체 남녀의 성적 결합이라는것이 실혓다。그것이 몹시 즘생스럽고 추한것 가탓다。그것이 아니고는 인류가 번식못한다는 인류의 운명을 헤련은 슬퍼할 정도엿다。

『예수도 독신 아니서? 마리아도 독신 아니서? 베드로도 바울도、사도들은 다 독신 아니야? 바울사도도 장가 안든자는 들지말고 시집 안간자는 가지말라고 안하섯서?』

하고 문임을 향하야 독신론을 주장한 일이 잇섯다。

『남편 되고 안해 되어서 아들 나코 딸 나코 살게 마련하신것은 하나님 아냐?』

하고 문임은 헤련의 독신론에 반대하엿다。

『그래두 난 시집 안가!』

하고 헤련이가 선언할때에、문임은、

『어듸 두구 볼까』

하고 웃어버렷다。

『혼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살자』

헤련은 이러케 속으로 생각하엿다。이성을 그리워는 하면서도안해되기、어머니 되기를 실혀하는 마음——이것이 헤련의 성격이엇다。

副業또는本業에 紙袋의製造

僅少한資本으로收入確實生活安定되는紙袋製造는至極簡單하야婦女子도其날부터就業할수잇고일은四季를通하야絕對不絕產出品은永久히現金取引하고萬若弊店이中途에作業을中止又는製品의買受를拒絕한境遇는機械는賣價로써卽時買入할것을保證함

照會次第 型錄無代進呈

大阪市西區本田通一 千代田商會本店 電話西七二九八番

無職青年에게急告

農村都市勿論하고普校卒業程度로 의能動的青年으로遊渡日하는분 은二錢郵票同封至急照會하시오

安東縣五番通 文錢堂

速히하난는淋疾藥 特製 루―베리

藥價 一圓、二圓、五圓十錢

大阪市南久太郎町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一三六〇番

全國著名藥店에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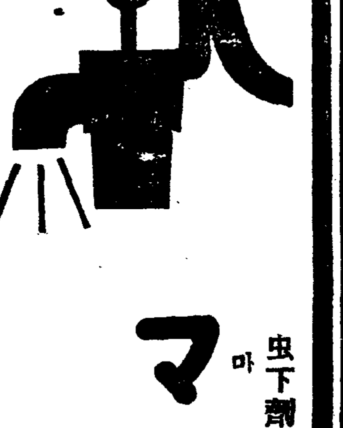
眞品 海狗腎 을販賣함

陽氣업서 悔歎하시는 분이여!

貴下를 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効를 가진 樺太廳官營捕獲

本品은 北洋寒帶樺太의 無人島産으로 樺太廳에서 官營으로 捕獲하야 同廳水産物檢查所에서 嚴正檢查證明한 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 一服하시면 그神効를 感하시리이다! 未服을 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求하시면 無料進呈함

發賣元 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二一二九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虫下劑 마구닌 マクニン 잘듯고 먹기쉽다

野菜・生水 榮養이되고 蛔虫이된다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點 山崎仁壽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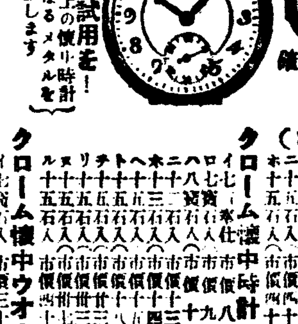
電光化門(二)五六番 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向フ一ケ月間 三萬個大賣出し』

市價三ヶノ一大勉強斷行!

◉特別大サービス急告 十圓以上の品御買の方には五十錢の萬年筆を 二圓以上の方には舶來シャープペンシルを無代進呈

▲十五ケ年以上保險附



是非一度御試用を! (五・〇〇以上の懷中時計には美麗なるメタルを無代で呈致します)

「代金送料 一ケ四十七錢」

クローム腕時計(舶來腕皮付) (11型) (10型) (9型) (8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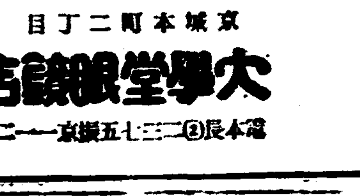
クローム懷中時計(クロームクサリ付)

クローム懷中ウオルサム

東京市淀橋區上落合一ノ六一七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電話落合長崎七一八番

各醫科病院御指定

煙火稍可親의讀書할가을 먼저整調한視力으로



京城本町二丁目 大學堂眼鏡店 電本局②二三七五 振京一一二九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ヘチマの精」 美晶크림

和暢한봄날에 生氣잇고부드러운 살결의主人公은 鏡臺압헤노히잇는 美晶크림입니다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丁目 大川盛進堂

經濟解說

小運送의統制
朝鮮非合同業運命
◎李健赫

× 十五日 [illegible]에서 小運送制度[illegible] 發表키로 되어 [illegible]의 原案을 [illegible]키로되 엇는데 [illegible]內容은

1、小運送을 從來와가티 自由營業으로 할것이나 또는 許可制度로하야 統制를 强化할것이나

2、現在[illegible]과 其他計算[illegible]에서 擔當하는 [illegible]小荷物[illegible] 貨物引換證發行 運送店間의 交互計算等을 다만私設會社에만 委하는 小運送企業의 完全한使命을 다하는데잇서서 疑問이니 이것을 鐵道省의 直營으로할가 또는 半官半民의 特殊會社에 委할가의 두가지인바 [illegible]

에依하면 [illegible]은 [illegible]로하고 지금의 [illegible]을 半官半民會社로하되 [illegible]에서反對한다면 [illegible]으로 할것같이 보인다。

× 이에對하야 中[illegible]은 「半官半民會社로하면[illegible]上 其他로 弊害가 잇겟스니 現狀대로 充分하다 大正十三年小運送制度調査會에서 直營案 半官半民案 免許制度案等이 硏究된結果 現在의指定制度가 採用되엿던것이고 大正十五年小運送合同으로 今日에 至한歷史로보아서도 새삼스럽게 半官半民으로 할까닭이 업다」라 고말은하나 이미 十五日 閣議에서 調査會構成까지 決定되엿고 十月中旬 第一回會合을 行하야 今年中에 成案을 어더가지고 來議會에 提出할 양인즉 問題는 業者側의 肯不肯에 不拘코 實行에 向케될 [illegible]下에 잇는바 이것은 昭和二年運送合同完成에 [illegible]一店主義에 依한 指定[illegible]制度[illegible]以來의 [illegible]이니라 [illegible]으로 [illegible]大와 小運送制度改善으로 [illegible]的으로 國民負擔의 [illegible]을 期한다는 것이라는 一層注目될터인데 이제 [illegible]運送會社合同[illegible]案이라는것을보면 如左하다。 資本金은 三千萬圓으로 出資會社는 國際 通運株式會社(所在地 東京、資本金一千五百五十萬圓) 外에 六個의 小計算會社(非指定取扱人의 計算會社)로하고 殘額(半額)은政府에서 出資하자는것이다。

× 이와가티 日本內地에서 小運送問題가 重視되는이때에잇서서 朝鮮의 [illegible]運送은어떠한가? [illegible] 指定運送取扱人으로 運送合同의 產物인 朝鮮運送株式會社가 獨占的으로 事業을 經營하고잇고 그勢力에잇서서決코 [illegible]에는 對抗할수는업스나 이 全朝鮮一千餘店 ([illegible])를 占하는것은朝鮮人業者)의 所[illegible] 非合同運送業者가잇서 [illegible]이 [illegible]에依하야 [illegible]을가진데反하야 何等의[illegible]이 업시그나마 [illegible]지못하고 [illegible]하면서 그들의 [illegible]計算會社까지 創立하야 今日에잇서도 內部에모든問題가만히 [illegible]인데 日本內地에서 半官半民會社가 생긴다면 朝鮮運送도 半官半民會社로될것이며 도現在千餘非合同業者들은 어떠케 될것인가를 打診키爲하야 먼저 朝鮮의 運送業이 오늘까지 어떠하게 거러왓는지를 살펴보기로하자。

× 朝鮮의 運送取扱業도日本內地와가티 自由營業으로서 [illegible]府時代에 日本內地로부터 너드러온[illegible]과 [illegible]大連에本社가잇는 國際運[illegible]會社가 朝鮮서 가장큰 運送業을 하얏는바 이外에도 [illegible]力잇는個人[illegible]의 [illegible]業者[illegible]이 承認하야 [illegible]運送店이라해왓섯다。 此等大運送店外에도 歐洲大戰當時 好況에[illegible]하야 各種事業勃興에 刺戟되어 小運送業者가 雨後竹筍가티 簇出하얏는데 그後反動[illegible]來로 商取引이 不振케되자 貨物取扱도 激減[illegible]을따러 小運送業者의 廢業도 深刻한바잇섯다。 그리자 鐵道省의 一驛一店主義發明과 運送合同에 刺戟되어 鐵道局에서도 大正十五年十一月에 小運送界의 [illegible]政策을目標로 承認運送店規定改正을 企畫케되엿는바 그 案은 一驛一店制를 實施하자는것이엇스나 이것이 業界의 反對로 撤回케되고 그로부터 [illegible]된것이 所謂「朝鮮運送合同」이 [illegible]것을 昭和二年四月 朝鮮[illegible]에서열린 全朝鮮承認運送店[illegible]會席上[illegible]戶田[illegible]의 [illegible]로부터 [illegible]가 發[illegible]되바 그發明의大要는 如左하다。

「全朝鮮[illegible]의 取扱[illegible]은 昭和元年度는 年間[illegible]四千[illegible]이오 承認運送店은 一店[illegible]一萬二千[illegible]을 取扱하얏다 이가려 少[illegible]取扱인것은 全朝鮮業者가 千三百餘店의 多數인때문으로 그 收[illegible]이 [illegible]이다。 一驛一店을 [illegible]는안는터이면 나 小合同이면 [illegible]合同이면 면 資本合同이 作業合同이던 어떠케던지 [illegible]合同하고 最後에는 全朝鮮業者가 一個 式二個의 大會社로 合同하면 特權을 주겟고 最大의援助를 하겟다」 라하야 當時業界의 大衝動이 惹起되엿섯다。 (계속)

九月一日在米 百九十九萬石
細大無漏히 新調査要綱으로 朝鮮最初의在米調査

今年度부터새로이 實施되는 米穀三大調査에基한 米穀現在高調査는 九月一日現在量 第一回로서 農林局에서 調査하얏는데그 總額은 合計百九十九萬五百五十七石으로 農林局長談話形式으로 써二十二日에如左히發表되엇다。

農林局長談 = 九月一日現在의 米穀現在高는 今年새로 이定한 調査要綱에基하야 米穀取扱業者의 店舖又는 倉庫、倉庫業者의 倉庫 公私設의 市場等에잇는 米穀은勿論이오 一般 米穀生產者의 家庭에잇는 米穀이라도 日日의消費에 充키爲한 小出又는 小賣할米穀을 除하고는모다 調査하얏고 運行中의貨車船舶等에잇는 米穀도 細大無漏히 調査한것인데 如左하다。

朝鮮米	一、九六七、六六七石
日本內地米	一三、三一一
臺灣米	二〇、三五四
外國米	二二五
合計	一、九九〇、五五七

米穀需給實績

九月一日現在의米穀現在高를 基礎로한 過去十個月間의 朝鮮內 米穀需給實績은 如左하다 (單位石)

◆供給

前年持越	四七五、五〇三
生產高	一七、八八四、六六九
前年十一月로부터八月까지의 輸移入高	九三、二〇八
計	一八、四五三、三八〇

◆需要

九月一日現在高	一、九九〇、五五七
前年十一月로부터八月까지의 輸移出高	八、六四二、六六四
計	一〇、六三三、二二一
十個月間의消費高	七、八二〇、一五九

會文炭鑛擴張

東拓傍系會社로서設立되어 埋藏量八百九十萬屯의鑛區를가지고 北朝鮮炭田開發事業에 着手키로 된 會文炭鑛株式會社는 大規模의探炭計畫과 增資豫想 等으로 事業의根幹이되는 搬出機關에就하야 山에서 會文驛에至하는軌道에依하지 永安驛에直通할 索道에依할가에對하야 目下調査硏究中인데 大體永安에至하는 索道說이有力하야 結局會文驛에는 鑛業事務所요 同舍宅程度의것이라한다

同社는 常務取締役 金性祚氏가 朱南炭山에 有望한데着目하고 今回東拓傍系會社로서 事業經營에當하게된것이라하며 同社取締役兼營業所長[illegible]重熙氏도 二十一日京城發赴任하얏다한다

自管法、發動 停止를要望
取引所聯合會에서

朝鮮取引所聯合會臨時總會는 二十日 午後一時二十分 咸興府會議室에서 開한바 朝鮮米作은 平年作보다 三割五分乃至 四割의 減收가明白하니 朝鮮에는 米穀自治管理法發動을 停止키를 當局에陳情하기로 되엇다한다

殖銀關係水組 被害三十五萬圓

殖銀關係의 水組中今次의 風水害의被害를 受한各水組의 被害額은 目下本店에서 集計中인데 大略六十五萬圓內外로될模樣이다 此等水組의復舊는 全部가 更生水組令에 加하한 水組인만큼 總督府에서는 [illegible]中인바 結局 [illegible]의 [illegible]은 [illegible]하고 其他는 更生[illegible]에 依키

肥料資金 配定決定
總額三百萬圓

昭和十一年度肥料資金은 財務局과 農林局及融資銀行과 折衝中이든바 總額三百萬圓을 如左히融通키로 決定하얏다

一、總額 三百萬圓 要入利率年四分

殖産銀行	百萬圓
東洋拓殖	百萬圓
金組	百萬圓

殖銀、東拓은 四分八厘償出、그리고 金組는 六分三厘償出、自己資金을 折半償出키爲하야 實際融資는 農會貸五分九厘五毛、金組七分二厘一八分二厘로 되리라한다

米輸移出高累計 九百萬石臺肉迫
◇……粟輸入도續激增

朝鮮米의 移出은 九月中旬의 十一萬七百三石으로 昨年十一月以後累計 八百九十萬六十石에達하야 九百萬石을 目前에 바라보고잇다 中旬中의 移出은 昨年同期의 五萬八千四百餘石에比하야 五萬一千餘石의 增을보고 累計는 前年보다 六十一萬餘石의增을보앗고 輸出을 合하면八百九十五萬一千四百四十五石으로 前年보다 五十三萬石의 增을보앗다 그리고 粟의輸入은 中旬이 一萬一千九百餘石으로 前年同期의 七千六百餘石보다 四萬三千石의 增이고 昨年十一月以後累計는 百二十六萬六千九百餘石으로 前年보다 二十二萬餘石의 輸入增이다

그리고 今年의 朝鮮米輸移出量은 九百五十萬石을 突破할것이確實케보인다한다

▲九月中旬及粟輸出入高는 如左하다

米輸移出高(以下單位石)

	今年	前年
中旬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單位石)

	今年	前年
中旬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單位石)

	今年	前年
中旬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降累計	[illegible]	[illegible]

米日爲替暴落

【經濟廿一日發同盟】今日의 米日爲替는 休日前日에 比較하야 賣廿九弗六十仙으로 三仙低이오 買廿九弗五十九仙으로三仙低이다

東京爲替 (二十二日)

對米	賣	二十九弗 二分一
	買	二十九弗 八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 卅二分一

大阪爲替 (二十二日)

對米	賣	二十九弗 十六分九
	買	二十九弗 八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 卅二分一

棉收穫豫想 億四千九百萬斤
前年比三割二厘減

【總督府農林局發表】本年의棉作狀況은 播種當時多少低溫이엿기때문에 播種이一般으로 遲延하엿섯스나 其後天候順調하야 發芽가 極히良好하엿던바 五月中旬부터 六月中旬까지에 旱魃로因하야 生育抑制되엿든것이 六月下旬에 適雨하야 一般으로生育漸次回復하엿다

그러든것이 生育中期以後의天候連日陰濕不順하고 發育도軟弱케하야 開花遲延하고 조하야陸地棉地帶에 數次의豪雨와全南、慶南北道一帶는 颱風으로落蕾、落花、落鈴한곳이만히 開絮亦例年에比하야 相當히遲延을豫想되는지라

九月十日現在에잇서서 反當收量豫想은 陸地棉六七斤 在來棉七六斤 總平均六七斤으로 前年反當收量陸地棉 一一五斤 在來棉七一斤 總平均一〇二斤에比하야 陸地棉은 五三斤의 減少를보고 在來棉은 此에反하야七斤의增 總平均三五斤의減收를보아 結局收穫豫想高陸地棉은 九千九百十六萬四百七十六斤、在來棉五千萬五千二十五斤 計一億四千九百十六萬五千五百一斤으로 前年實收高에比하면陸地棉七千七十八萬八千[illegible]斤(四割一分六厘)의減 在來棉六百二十一萬八千五百七十六斤(一割四分二厘)의 增 計六千四百五十六萬九千七百六十六斤(三割二厘)의 減收가豫想되고잇다

左에此의累年對照表를보면 다음과갓다

(그리고 昨年實收高는 本年收穫豫想報告와 比較對照하기때문임)

一、棉收穫高累年表 (咸南의在來棉을 除하엿다)

年次	收穫高
昭和元年	[illegible]斤
同 二年	[illegible]
同 三年	[illegible]
同 四年	[illegible]
同 五年	[illegible]
同 六年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經濟界消息

○高山東拓總裁入院=高山東拓總裁는 廿一日來感氣로朝鮮호텔에서 靜養하다가 二十一日正午大學病院에入院加療中이라고

○朝鮮皮革總會=朝鮮皮革會社에서는 二十二日 午前十時부터 永登浦本社에서 定時株主總會를開催、年三分配當据置案을可決하엿다고

經濟寸鐵

○ 米穀三大調査의 첫시작인九月一日 在米는 約二百萬石으로 發表

○ 아조 細密히 調査햇다는데 너무 잘게調査하면 도리어 나치는 數字가 나올念慮가업지 안흘것

○ 凶作年인 今年 米收穫豫想이 어떠한 數字를 보일지?

○ 棉作은 三割二厘減인데다가 品質이不良하야 等級低下豫想이라니 農民의打擊은이것도二重

○ 쌀이그러코 솜이그러코 全穀農作이모다 이지경이겟스니 어찌하노

世界小麥減收

【經濟二十一日發同盟通】米國農務省은 蘇聯邦及 中國을除하고今年度의 世界小麥生產高 二十九億三千八百萬國 見積으로 推想發表하엿다 이것은 前年實收高에比較하야 五%의減收이라한다

新糖市勢不勢

十一月一日부터鐘當來期新糖四月限市勢의 前途를下하는意味에서 注目되던 場外의新糖四月限賣買는 前月十一圓丁에 始作되어 十圓八十錢까지 低落되게 無商談으로 推移되엇다가 近日에 西側으로부터優勢한賣物이 注入되어 俄然下放되어 十圓六十七錢五厘로賣買되고 其後六十五錢으로 續落하얏고 六十錢의 低價가잇섯는바 大阪에서는 十圓五十錢으로 東京보다 下輪이엇다 한다

重要商品界事情

商況 (廿二日)

株式 一高後에 急落

前場反戾 前場寄付에는東新 百三十八圓丁 日產 八十一圓八十錢 朝新 三十六圓六十錢 鐘新 百七十圓八十錢으로 모다 低寄하고 大新이 七十一圓八十錢으로 獨高인後 漸戾步調를보여 東新 百三十九圓九十錢 大新七十三圓二十錢 朝新 三十六圓 日產 八十二圓五十錢 鐘新 百七十一圓九十錢으로 一齊反戾이엇다

▲朝新 三六五〇(寄) [illegible]

▲大新 七一八〇(寄) [illegible]

▲東新 一三八〇〇(寄) [illegible]

後場再軟 後場에는 增稅案內容發表를보고 東新百四十一圓 日產八十二圓七十錢 大新七十三圓九十錢에 寄付하엿스나 結局東新百三十七圓二十錢 日產七十九圓五十錢으로 再軟化하엿다

抵抗力이强大

日中關係는 漸次險惡化하야 陸戰隊를 增派하는等 形勢危急을 傳하고잇다。 이對中問題는 日本經濟界에 對하야、最大의 問題라고해도 過言이 아니것만큼日中交涉의 推移如何에는 深甚한 關心과 注意를 不怠하야 市場은 늘 警戒하고잇스나 大體로 이러한 政治的問題에 對하야는 悲觀치안코잇는것이 現今一般의 趨勢로서 조금市場을 壓迫하는듯하다가는 곳 反撥하는것은이것을 證明하고잇슬뿐아니라 때로는 도로혀强材視하고잇는것을 注目할 現象이라고 안흘수업다 昨後場에는 警戒裡에 一急落狀을보인 市勢는 今朝에는 다시 反撥을 示하고 잇는것은 這間의消息을 傳하는것이라고도할가? 아무튼 아모리不安恐怖裡에 推移하기는햇스나 六七個月동안 죽은듯이 힘을못쓰든 이市勢나 이만한程度의活潑은 期待할이오히려 當然하다고 强氣는말한다

大新買氣集中

東新이 爆發하고 雜株가一齊騰貴한때에도 大新은홀로 低迷裡에推移되고잇던바 昨日부터 大新獨高의場面을 나타내어 今前場에도 七十三圓二十錢이란 高價로 昂騰하엿다 이것은 오랫동안의 懸案이든 長短期合併이 認可될모양이라고 이를好感한것이라는데 如何튼 이것을 機로 大新에도 關心을가지게되어 或은 昂騰의 一路를보일것이 아닌가고 觀測되고잇다

探算細密檢討

稅制整理案大綱決定으로國策關係材料가 出盡하엿다고보고 또이미豫測햇든것이라고 平靜하야 安心的氣配인 모양인데 勿論常識的으로 생각해도 爆氣時代는 이로써 끗나것다고도 볼수잇스나 今後에 細密한 探算檢討가잇슬것이니 最後의 議會決定까지에는 幾多의 曲折이 잇슬것이니 單히 安心할수는업다。 어떠이든 現在의情勢下의 增稅가 財政의收支를 마추기爲한 必要上 稅餘의一策으로 取하는것이아니오 生產業을 刺戟하야 [illegible]시킬 方針下에 하는것이[illegible]

米期 瓦落後에 下漲

前場瓦落 昨後場阪地三十圓三十八錢止와共히 二十七圓九十九錢에 入하야 場을止한 當市場은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〇[illegible]

六感

株 …昨後場은 低迷를 市勢가 今朝에 一齊反撥▲今日午前에 增稅案이發表되엿다는데이것의 好感인가 後場은東新百四十圓으로 再進好勢 ▲日中衝突이되면 하고念慮하는이도잇스나 차라리 오히려事件을지르면 有利하게 展開되리라고 皮肉的으로 强材視? ▲大잣자든大新은 長短期合併認可를 [illegible] 猛進! ▲何如間 主力株의 警戒치안흠은 上勢는注目된다

米 …日本內地는 東京의降雨가 多少買氣를 助長하는모양이나 其他地方이 大體好天임으로 彼岸天候도 또한無事? ▲朝鮮도今日부터 可謂秋天一碧의好晴! 凶作은旣定事實이나 그러나 秋日氣나良好하엿스면 以上의減收나아니되게 ▲朝鮮米의九月一日現在殘存高는 百九十九萬餘石으로 發表되엿다 이數字가 果然 四十萬名總動員의 徹底한 調査? ▲此數字를 基調로하고 日本內地 移出量을 消費量과 그다지 [illegible]할것도 除하고보면 그러나 來月부터 新米를 消費하는 關係上 [illegible]에까지 至하지는안켓지만…

朝鮮內殘存米 約二百萬石

九月一日現在 朝鮮內의殘存米는 百九十九萬五百五十七石으로 發表되엿는데 例年에는九月一日의 殘存米를 調査發表한바업슴으로 前年同期와의 比較는할수가업스나 十一月一日의 朝鮮持越米가四十萬石乃至五十餘萬石에 不過한 前例를 보아서 本月中의日本內地의 移出量과朝鮮內의 二個月間消費量을除하면 그남어지가 來米穀年度의 持越米가 되고말모양인데 二個月間日本內地移出을百萬石으로 假定하고 또朝鮮內의 消費量을 百四十萬石으로 假定한다면 總計二百四十萬石으로 結局四十餘萬石의 不足을告하게되는 다 그러나來月부터는 早場米의 出廻로 需給의不安을 緩和할것으로 觀測되는바 何如間 十一月一日의 持越은 例年과의 別差異가 업슬것이며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低落 期米暴落과 拂下發表에 唱價二十錢低落이엇다
㊂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
○一等白米二二、八五

仁川急落 當地의 政府米賣却發表에 人氣低迷이든차에 期米崩落을보고 氣配二十錢引緩이엇다
㊂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
○一等白米二三、五〇

釜山下漲 日本內地定期側의 當限準備로在米減은 極히顯著하야 今朝 定期崩落도 不拘코 市況은 下漲中이엇다
㊂三等二九、七〇 四等二九、四
○一等白米二三、一六

大邱少强 當用側의 價位買進과 現物不足으로 人氣底强하야 期米崩落도 모르는제 市況은 少强이엇다
㊂三等二九、二〇 四等二八、九
○一等白米二二、四五

群山反落 日本內地當用買는 多少 繼續되나 定期低와秋夕을 압둔換金的賣物에 눌려 氣配二十錢反落이엇다
㊂三等三〇、一〇 四等二九、九
○一等白米二四、〇〇

木浦氣崩 繼續하야 買人氣가업고 賣方이 沈默을 지키고잇는데 때마츰 定期反落을듯겨 市況은二十錢氣崩이엇다
㊂三等二九、四〇 四等二九、一
○一等白米二三、〇〇

米 盃 株 仁川 京城 金益商會 金益證券

北濱情報

▲大株長短期의 合併 說에 對해서는 主務省으로부터 本認可의 內諾이 잇섯스므로大株取引員組合에서는 二十二日 如左히 發表하엿다 「長短合併에關하야서는 六月內 認可를 어덧스므로 將來 取引員로 出願에 關한 [illegible] 主務省에서 [illegible]回 드디어 [illegible]으로부터 長短合併에 [illegible]認可의 內諾을 어덧스므로 이에關聯한 取引員免許手續을 하기로되엇다 [illegible]은 今月末이나 來月初旬이될模樣이다

高價買氣不添
畢竟은反落!

昨今日本內地는 各地의 降雨로 彼岸天候가 조치못한것이라하야 買氣가 旺盛하엿슬뿐아니라 [illegible]

後場下漲 後場은 二十七圓八十錢인 二十一丁高로 寄付한後 二三四節八十二錢으로 八十一錢에 止場하다

今日財界 (廿二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低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低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illegible]	不變

◆市中金融

金	[illegible]	[illegible]
銀	[illegible]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illegible]低
東新	[illegible]	[illegible]低
日產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不變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不變

堂島前場情報

天候回復의 一齊低와 第二次拂下九年產米가 滯米化될 念慮가잇고 朝鮮內拂下에 買氣阻喪되어 軟派의 突擊으로 賣叩되엿스나 田中眞의 猛烈買로 下支商狀이나 戾賣의 形勢이엇다

▲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 潮政 朝鮮側 地場軟派 [illegible]

買方 朝鮮側 朝鮮別派

朝取期米取組

◆賣方 ◆買方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增稅案에關連하야 賣人氣로 不動書 示하엿다 結局公債市場도 處分賣 一段落과함께 漸次安定狀態가되어 內國債는 四分利價가 五十錢 引級한外에는 保勢이고 外債는 佛貨價가 十錢低 米貨五分半 三十錢低를 告하엿스나 六分半은 實物落으로 保勢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三〇▲一回四分利 [illegible]▲佛貨 不申

期米 仁川本町 吉村榮左エ門商店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金融 (廿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賣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米 (廿二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商品 (廿二日)

◆京城絲布市勢◆ ◆京城綿布◆ ◆綿押粕沖價◆ ◆豆油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 (廿二日)

◆朝取短期實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實定代引日步◆ ◆朝取短期◆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期米 (廿二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商品 (廿二日)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海外棉期米◆

各地正租市勢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穀良都、仁川銀坊主、大邱穀良都、釜山穀良都、群山銀坊主、木浦銀坊主、鎭南浦陸羽、新義州陸羽、元山龜尾、咸興陸羽、馬山穀良都、平壤陸羽 — [illegible]